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듭니다

사랑의열매는 20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건 환경 개선 및 위생 교육을 지원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협력 기관에 총 **563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5,161억 원을 배분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76 2021 DECEMBER



2021  
**12**

상부상조  
정신으로  
만드는 풍요로운  
지역사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앞장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 새마을금고의 상생 이야기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76 2021 DECEMBER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듭니다

사랑의열매는 20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건 환경 개선 및 위생 교육을 지원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협력 기관에 총 **563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5,161억 원을 배분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www.sarangiyeolmae.com

2021  
**12**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눔은 지극히  
당연한 일

대구 역대 최고액을 기부하며  
소신나눔기금 조성한  
(주)우리택 임길포 대표이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듭니다

사랑의열매는 20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건 환경 개선 및 위생 교육을 지원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협력 기관에 총 **563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5,161억 원을 배분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76 2021 DECEMBER



2021  
**12**

## 충남 전역 누비며 실천하는 이웃사랑

직접 발로 뛰길 주저하지 않는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중 회장의 진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 사랑의열매

ISSUE 176 2021 DECEMBER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듭니다

사랑의열매는 20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건 환경 개선 및 위생 교육을 지원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협력 기관에 총 **563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5,161억 원을 배분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열매



2021  
**12**

## 우공이산(愚公移山) 마음으로 만드는 나눔의 기적

전남 지역 수재민들 도우며  
본격적인 나눔의 길에 들어선  
(주)한빛산업개발 우상호 대표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kimtae.\_kimtae**

2021.11.19 +521  
태리 이름으로 하는 첫 기부.  
집에 있는 동전 다 넣기.  
#김트래워 17개월아기 #육아 #육아일기  
#기부 #사랑의열매  
#소소하지만 #따뜻한연말



**joo.seunghoon**

줍깅에 참여해봤다. 마음 맞는 동료랑  
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큼  
값진 건 많지 않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길거리에 담배꽂이가 보인다. 또 300m  
걸을 때마다 나오는 마스크. 얼마나  
많길래 길거리에 버릴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일주일에 마스크를 얼마나  
사용할까? 나는 7개도 안 쓰는데.  
#탄소중립 #줍깅  
#자원봉사 #이달의기부자 #사랑의열매



**bob\_yeongnaring**

GS25 사랑의열매 젤리  
1200₩  
체리 향 솔솔~~  
쫄깃쫄깃한 사랑의열매 모양 젤리!  
젤리도 먹고 기부도 함께, 일석이조.  
#GS25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젤리  
#갓생기획 #젤리 #기부 #불우이웃돕기

###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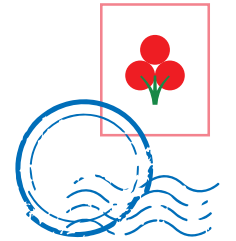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랑의열매 의리의 홍보대사 허석김보성입니다.

회보 <사랑의열매>를 통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기부자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올해는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맞서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겨울이 마냥 춥고 단절된 계절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아이들은 없는지,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어르신은  
없는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십시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분명,  
그 안에서도 이웃사랑과 희망의 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2월부터 이웃사랑을 위한 ‘희망2022나눔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의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허석김보성



# CONTENTS



-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①  
함께 만드는 나눔백신, 희망2022나눔캠페인
- 10 나눔 컨퍼런스  
지역사회와 MZ세대가 함께한 모두다토론회
- 12 클라우드펀딩  
도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9명의 예술가
- 1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서울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6 2021. 12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12월 / 통권 17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을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이달의 표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정보람 대리, 유경진 본부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권기동 이사(왼쪽부터)

# 2021 DECEMBER



- 24 **모두의 나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하여
- 30 **내 인생의 한마디**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김한상 대표
- 34 **착한맛집**  
더없이 완벽한 눈꽃 세상, 무주
- 38 **FUN한 나눔**
- 40 **나눔공모전**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 42 **나눔 이슈**  
상품 개발 업무 협약 체결한 GS리테일과 사랑의열매
- 44 **아너 대표 회의**  
2021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 개최
- 46 **나눔국민대상**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 47 **열매인(人)터뷰**  
제주 사랑의열매 제10대 강지연 신임 회장
- 48 **전국 지회 뉴스**
- 58 **이달의 아너**
- 60 **독자 페이지**



# CONTENTS



-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①  
함께 만드는 나눔백신, 희망2022나눔캠페인
- 10 나눔 컨퍼런스  
지역사회와 MZ세대가 함께한 모두다토론회
- 12 클라우드펀딩  
도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9명의 예술가
- 1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울산·경북·경남·부산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6 2021. 12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12월 / 통권 17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을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이달의 표지**  
50억 원 기부해 소년나눔기금을 조성한 (주)우리텍 임길포 대표이사

# 2021 DECEMBER



- 24 **모두의 나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하여
- 30 **내 인생의 한마디**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김한상 대표
- 34 **착한맛집**  
더없이 완벽한 눈꽃 세상, 무주
- 38 **FUN한 나눔**
- 40 **나눔공모전**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 42 **나눔 이슈**  
상품 개발 업무 협약 체결한 GS리테일과 사랑의열매
- 44 **아너 대표 회의**  
2021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 개최
- 46 **나눔국민대상**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 47 **열매인(人)터뷰**  
제주 사랑의열매 제10대 강지연 신임 회장
- 48 **전국 지회 뉴스**
- 58 **이달의 아너**
- 60 **독자 페이지**



## CONTENTS



-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①  
함께 만드는 나눔백신, 희망2022나눔캠페인
- 10 나눔 컨퍼런스  
지역사회와 MZ세대가 함께한 모두다토론회
- 12 클라우드펀딩  
도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9명의 예술가
- 1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충남·세종·대전·충북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6 2021. 12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12월 / 통권 17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을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이달의 표지**  
충남 사랑의열매 회장 취임 2년 차를 맞는 (주)도원이엔씨 성우중 대표이사

## 2021 DECEMBER



- 24 **모두의 나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하여
- 30 **내 인생의 한마디**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김한상 대표
- 34 **착한맛집**  
더없이 완벽한 눈꽃 세상, 무주
- 38 **FUN한 나눔**
- 40 **나눔공모전**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 42 **나눔 이슈**  
상품 개발 업무 협약 체결한 GS리테일과 사랑의열매
- 44 **아너 대표 회의**  
2021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 개최
- 46 **나눔국민대상**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 47 **열매인(人)터뷰**  
제주 사랑의열매 제10대 강지연 신임 회장
- 48 **전국 지회 뉴스**
- 58 **이달의 아너**
- 60 **독자 페이지**



## CONTENTS



-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①  
함께 만드는 나눔백신, 희망2022나눔캠페인
- 10 나눔 컨퍼런스  
지역사회와 MZ세대가 함께한 모두다토론회
- 12 클라우드펀딩  
도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9명의 예술가
- 13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전남·제주·광주·전북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 사랑의열매

vol. 176 2021. 12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12월 / 통권 17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을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 이달의 표지

전남 지역 수재민을 위해 다양한 물품 기부를 펼쳐온 (주)한빛산업개발 이상호 대표

## 2021 DECEMBER



- 24 **모두의 나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하여
- 30 **내 인생의 한마디**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김한상 대표
- 34 **착한맛집**  
더없이 완벽한 눈꽃 세상, 무주
- 38 **FUN한 나눔**
- 40 **나눔공모전**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 42 **나눔 이슈**  
상품 개발 업무 협약 체결한 GS리테일과 사랑의열매
- 44 **아너 대표 회의**  
2021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 개최
- 46 **나눔국민대상**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 47 **열매인(人)터뷰**  
제주 사랑의열매 제10대 강지연 신임 회장
- 48 **전국 지회 뉴스**
- 58 **이달의 아너**
- 60 **독자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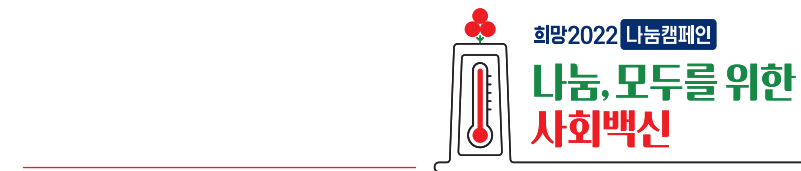




62일간 희망의 여정 드디어 시작

## 함께 만드는 나눔백신, 희망2022 나눔캠페인

지난 12월 1일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인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해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한 덕에 올해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 이번 캠페인에도 많은 성원이 모여 또 한 번 나눔 기적을 쓰아 올릴 수 있길 바라본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사랑의열매



## 나눔을 모아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으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캠페인의 모금 목표는 전년 대비 105.7% 증액한 3,700억 원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이번 캠페인 역시 2020년부터 이어온 사회백신을 핵심 나눔 메시지로 담았다. '나눔, 모두를 위

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 함께 일상 회복, 대한민국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미리 발표한 4대 지원 분야에 따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 희망2022나눔캠페인

### 4대 지원 분야

####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신빈곤층 지원
- 코로나 블루 등 마음 건강 지원
- 디지털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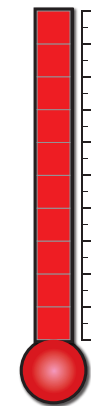
####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돌봄 공백 긴급 지원
- 장애인·노인·노숙인 등 돌봄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사회적 약자 학대·방임 예방 및 지원

#### 희망2022 나눔캠페인

나눔온도  
100도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위기가정 긴급 지원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촉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 고독사 예방

#### 교육·자립 지원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동 학습 공백 교육비 지원
- 청년 취업 교육 및 자립 지원
- 위기가정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희망나눔캠페인 한눈에 살펴보기

곳곳에 설치하는 사랑의 온도탑,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등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 희망나눔캠페인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겨울 풍경이 되었다.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온기 가득한 희망나눔캠페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독자적 행보에 나선 첫해부터 큰 성공 거둬

희망나눔캠페인은 희망찬 내년을 열어간다는 의미로 '희망'이라는 글자에 다음 연도를 표기해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처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당시엔 사회복지협의회 도움을 받았다. 다음 해에 진행된 희망2000이웃돕기캠페인부터 사랑의열매가 독자적으로 주관하며,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모금되는 등 성공적 결실을 거뒀다. 덕분에 민간 모금 활동의 정착과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IMF 외환 위기로 경기 침체가 심하던 시기임에도 희망2001이웃돕기캠페인에서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기부금이 모였다. 특히 대기업이나 개인 고액 기부자의 나눔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소액 기부자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증가해 나눔문화가 확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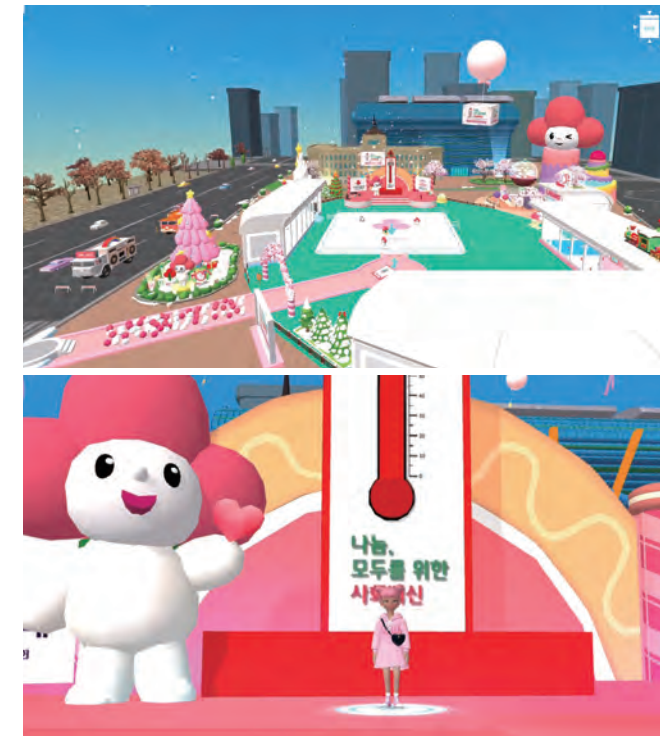


2009년 1월 30일에 진행된 희망2009나눔캠페인 폐막식 모습



## 기부 참여 계층 다양화 이끌어

희망2001이웃돕기캠페인에서는 사랑의 온도탑이 처음 등장했다. 당시 명칭은 사랑의 체감 온도탑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었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 눈금을 1℃씩 올려 일반 시민이 모금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덕분에 당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희망2002이웃돕기캠페인에서는 전년 대비 모금액이 무려 60% 이상 증가해 큰 화제를 낳았다. 이는 법인 기부금과 수도권외의 모금액이 증가하면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다. 기부 참여 계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기부자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해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또 한 번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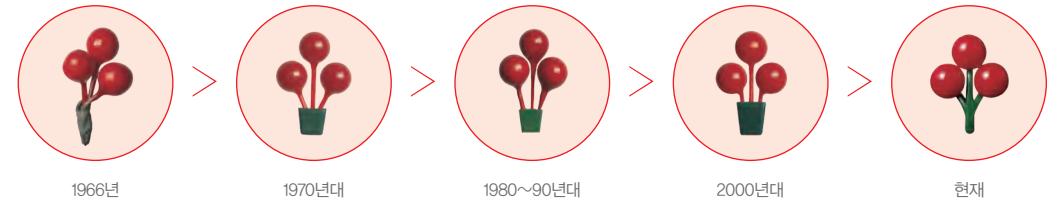
## 새로운 디지털 나눔문화 열어

지난해 희망2021나눔캠페인에서는 기부 방법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기부가 어려워졌기 때문. 이에 사랑의열매는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 최초로 QR코드 기부 방법을 도입해 비대면으로 보다 빠르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손쉬운 온라인 기부 환경도 마련했다. 이번 희망2022나눔캠페인에서는 가상현실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부 문화의 새 장을 연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안의 시청 앞 광장에 사랑의열매 홍보관과 무대, 게임장, 카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구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누구나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 빠르게 변하는 모금 환경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사랑의열매의 희망나눔캠페인에 앞으로도 많은 의미 성원이 모아질 기대한다.



## 사랑의열매에 대한 알쏭달쏭 궁금증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 기간이 되면 사랑의열매 배지를 단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세 알의 빨간 열매는 사랑의열매의 정신을 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나눔문화 확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궁금증 하나 세 알의 빨간 열매는 무슨 뜻일까?

1991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당시 복지부 최선정 국장이 '나, 가족, 이웃'이라는 의미를 제안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빨간 열매 세 알은 '나, 가족, 이웃'을,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궁금증 둘 사랑의열매 배지를 가지고 싶다면?

사랑의열매 배지는 전국의 주민센터와 우체국, 은행 등에 설치된 모금함에 기부 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면 배지 외에도 키링 등 관련 상품을 제공한다. 가까운 지역의 사랑의열매에 문의하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궁금증 셋 사랑의열매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사랑의열매 모양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사실. 지난해 액세서리 브랜드 미니골드와 함께 귀고리·목걸이·팔찌 등 사랑의열매 C를 활용한 러브체리시 컬렉션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GS리테일과 함께 사랑의열매 젤리를 출시하는 등 착한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다. 주문 제작 플랫폼 카카오페이커스와 사랑의열매가 협업해 '사랑의열매×춘식이' 기부 배지를 선보였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카카오페이커스에서 판매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난방용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

### 궁금증 셋 백당나무가 관련 있다?

2003년 2월 산림청에서 백당나무를 이달의 나무로 선정했다. 당시 "나·가족·이웃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는 사랑의열매처럼 백당나무의 빨간 열매는 추운 계절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상징하고 있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사랑의열매(중앙) 02-6262-3000	서울 사랑의열매 02-3144-7700	부산 사랑의열매 051-790-1400	대구 사랑의열매 053-667-1000
인천 사랑의열매 032-456-3333	광주 사랑의열매 062-222-3566	대전 사랑의열매 042-347-5171	울산 사랑의열매 052-270-9000
경기 사랑의열매 031-220-7900	강원 사랑의열매 033-244-1662	충북 사랑의열매 043-238-9100	충남 사랑의열매 041-635-0340
전북 사랑의열매 063-282-0606	전남 사랑의열매 061-902-6800	경북 사랑의열매 053-980-7800	경남 사랑의열매 055-270-6700
제주 사랑의열매 064-755-9810	세종 사랑의열매 044-863-5400		





2021모두다토론회 'MZ세대와 함께하는 나눔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가운데)과 MZ세대 패널들



지역 최초로 진행된 '경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두다토론회'

잘 나누기 위해 잘 들립니다

## 지역사회와 MZ세대가 함께한 모두다토론회

올해에도 소중한 기부금을 잘 나누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모두다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에는 경남에서 최초로 모두다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사회 소통에 나섰다. 또한 MZ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해 지난해와 차별화한 모습을 보였다.

글 이선희, 김현정 사진 이승재, 사랑의열매

### \* MZ세대의 솔직 담백한 나눔 담론

• 지난 11월 23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1 모두다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듣고,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랑의열매 김효진 기획조정본부장의 ‘2021 MZ가 생각하는 사회 이슈, 기부, 사회 참여’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MZ세대는 기부할

#### INTERVIEW



#### 친환경 패션 브랜드 M001 백무상 대표

“이번 시즌 아이템 95%를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재활용 소재 하면 페트병 정도만 떠올리는데, 모직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발굴해 하나씩 현실화해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아직은 어려움이 많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멋진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 단체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90년대생이 온다’ 저자인 임홍택 작가는 ‘90년대생이 왔다-MZ세대 이해하기’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랑의열매가 솔직함과 투명성으로 MZ세대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양한 패널과 현시대 청년들의 사회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두다토크가 진행됐다. 니트생활자 박은미 대표,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 사랑의열매 열매톡톡 온라인서포터즈 소속 대학생 등 총 10명의 청년 패널들은 청년 세대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 등 폭넓은 대화를 이어갔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연구위원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모두다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지역사회 배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

• 앞서 지난 11월 10일에는 ‘2021년 경남도민이 생각하는

\* 우리 지역 복지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토론 주제로 경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두다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토론회는 우리 지역 복지 현안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범죄 피해 가정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대한 복지 현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21년 경남도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에서 지난 3년간 경남 사랑의열매 배분 통계와 경남도민들의 의식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6개의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중 배분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도민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4위,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8위, 성평등을 9위로 꼽은 반면, 경남지회의 최근 3년간 배분 통계를 보면 각각 8위, 9위, 15위에 그쳤다. 이에 사랑의열매 김효진 기획조정본부장은 “경남도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성인지 감수성과 시민 사회 성숙도가 높아서 놀랐다”며 “도민의 의식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데 비해 우리는 제자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큰 숙제를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예술가에 도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클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도마를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9명의 예술가

“우리의 꿈과 희망까지 담아  
만듭니다”



발달장애인이 예비 예술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들이 참여하는 '나도 예술가' 프로젝트는 6개월에 걸쳐 직접 디자인한 도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



### 이들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힘을

#### 모아주세요

모금 기간 2021년 11월 17일~12월 31일

목표금액 372만 원

모금 사용 감사비, 도마 재료비, 배송비 등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캠페인 클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서울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의료진과 취약 계층에 성금 전달한 인천 새마을금고

#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상생, 저희의 존재 이념입니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인천 새마을금고! 이번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서며 상부상조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다.

글강은진 사진인천사랑의열매

###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생 위한 길

• 인천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인천 22개 선별진료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인천 지역 취약 계층에 5,34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해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 인

천 지역 본부를 포함해 53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가 나눔에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 방한용품 지원 후 채 한 달도 안 된 지난 11월 5일에는 인천새마을금고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 1,2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새마을금고 생명보험공제 'MG야 내 소원을 들어줘' 이벤트 목표액의 5%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



(왼쪽부터) 인천새마을금고협의회 고문섭·유영석·김중환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권기동 이사,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유경진 인천지역본부장, 인천새마을금고협의회 문현국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종열 부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안택권 부장

으로, 인천 관내 새마을금고가 십시일반 동참했다. 성금은 \*인천푸드뱅크 명동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 상부상조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

• 인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MG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진행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많은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1991년 발족, 임직원의 회비로 의료 소외 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새생명돕기회'가 대표적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권기동 이사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새마을금고는 좀더리 운동부터 시작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행복한 가계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지난 10월 방한용품 지원에 이어 다시 인천의 취약 계층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 인천 새마을금고가 <사랑의열매> 표지로 인사드리면서, 새마을금고가 추구하는 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정신인 '자주, 호혜, 공동체 정신'으로 더욱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 새마을금고중앙회 권기동 이사



\*인천푸드뱅크 명동사업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상설 나눔 마켓으로,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를 위해 배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유경진 인천지역본부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권기동 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정보람 대리(왼쪽부터)



‘2021 용인 사랑 나눔 김장 축제’ 참여한 경기 사랑의열매

# “후원과 봉사로 나눔을 실천해갑니다”

경기 사랑의열매가 관내 취약 계층의 김장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장 비용을 후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봉사에 나선 것. 이웃의 든든한 겨울 채비를 위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글 강은진 사진 경기 사랑의열매



2021 용인 사랑 나눔 김장 축제에서 김장 봉사 중인 경기 사랑의열매 임직원과 용인시 자원봉사자들. 매해 개최하는 용인시의 대표적 나눔 행사다.

### 직접 김장 지원 나선 경기 사랑의열매

•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는 요즘, 집집마다 김장으로 분주하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겨우내 먹을 김장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한국인의 밥상을 지키는 것은 바로 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김장은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웃들에겐 큰 부담이다. 게다가 동절기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다 보니 이중에 시달리게 되는 셈. 이런 이웃들을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2021 용인 사랑 나눔 김장 축제’에 김장 비용을 지원하고, 경기 사랑의열매 임직원들이 직접 김장 봉사에 나선 것. 용인 사랑 나눔 김장 축제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관내 취약 계층의 김장을 지



김장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한 경기 사랑의열매와 현진에버빌(주)

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 나눔 행사다.

### 1,300여 가구에 전달한 김치

• 이웃들의 부담 경감 및 영양 증진을 위한 이번 김장 축제는 지난 11월 12일 용인시청 시청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 및 임직원들이 봉사에 나섰으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용인시새마을부녀회, 고양테크놀러지,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미8군 용인 캠프 등 민·관·군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가 2,000만 원, 현진에버빌(주)이 3,000만 원을 김장 재료 구입 비용으로 지원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은 “이웃들과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뻐다”면서, “김장 김치 지원으로 든든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후원금을 기탁해준 경기 사랑의열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1만 3,000kg은 10kg 단위로 포장해 38개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1,300 가구에 전달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해 나선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

# “나눔 실천 위해 직접 이웃들과 만났지요”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앞두고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봉사 활동을 펼쳤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나눔의 교류 가진 아너 회원들

• 지난 11월 16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스노볼’을 만들어 보며 교감 시간을 가진 것. 이날 현장은 경기북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북부 지역 아너 회원들과 나눔명문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활동에 앞서 회원들은 경기북부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 및 계획을 논의하고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과 등을 공유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면서,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어 기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이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됐는데, 함께 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



1



2

1 발달장애인과 함께 스노볼을 만들어 교감하는 시간을 가진 회원들  
2 직접 만나 다양한 나눔 논의를 하며 교류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

6회째 소아암 환아 위한 글·그림 공모전 후원 중인 웅진씽크빅

# “도전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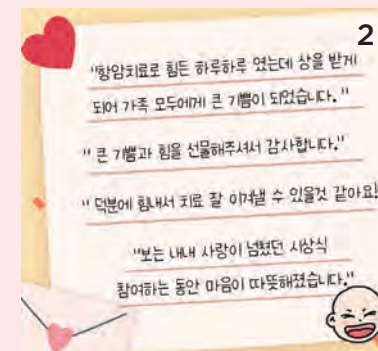
웅진씽크빅이 6회째 후원 중인 ‘웅진 또또사랑 희망담은 글·그림 공모전’. 소아암 환아들에게 좋은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투병 의지 다지는 기회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웅진씽크빅의 지속적인 후원이 눈길을 끈다. 소아암 경험자들이 책을 통해 느끼는 꿈과 희망, 생각과 감정 등을 펼쳐보는 ‘웅진 또또 사랑 희망담은 글·그림 공모전’을 2016년 첫해부터 6년째 후원해온 것.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웅진씽크빅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사업 중 하나다. 한창 성장해야 할 시기에 힘든 치료 과정을 경험하는 소아암 아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돕고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전



1



2

은 웅진씽크빅의 후원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공모전은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총 128점의 글과 그림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로 결정했으며, 시상식은 지난 10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어린이에게는 장학금과 웅진북클럽을, 참가자 전원에게는 부상과 기념품을 수여

했다. 수상자들은 “항암 치료로 힘든 하루하루였는데 상을 받게 되어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큰 희망을 선물 해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용기를 얻어 힘든 치료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모전 참가작은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10월 11일부터 온라인 전시회(<https://soaam.or.kr/competition/exhibition/list.php>)를 진행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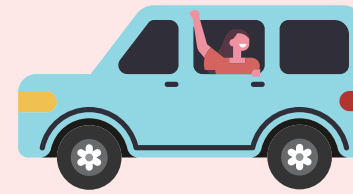
1 온라인으로 진행된 웅진 또또사랑 희망담은 글·그림 공모전 시상식 2 공모전에 참가한 환아의 감사 후기



강원 사랑의열매, 2021 기획 사업 전기 차량 포트로 지원 전달식

#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안전하게 달려요!”

강원 사랑의열매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기관 11개소에 전기 차량 11대를 지원했다. 이로써 강원도 내 홀몸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 강은진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친환경 전기 차량 포트로 지원 사업은 강원 사랑의열매의 2021 기획 사업이다. 사진은 전달식 모습

### 친환경 전기 차량 11대 지원

• 지난 10월 25일, 강원 사랑의열매의 2021 기획 사업인 '친환경 전기 차량 포트로 지원 사업' 전달식이 있었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주)디피코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과 강원도청 최복수 행정부지사 및 강원도 내 노인 맞춤 돌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이번 기획 사업으로 강원도 내 노인 맞춤 돌봄 기관 중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병행·수행하는 기관(영월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속초UCAR센터,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창노인복지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태백노인복지센터, 동해시노인복지관,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인제군사회복지관, 강릉시니어클럽,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에 친환경 초소형 전기 차량 '포트로' 11대를 지원했다. 그동안 홀몸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생활지원사들은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 지원 물품 등을 이송하다 보니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이중으로 안고 있었다. 이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달식에 함께한 강원 사랑의열매와 강원도 내 11개소 노인 맞춤 돌봄 기관 관계자들

###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말벗 안부 확인, 안전 확인 및 생활 교육, 후원품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 37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강원 사랑의열매의 친환경 전기 차량 포트로 지원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보다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노인 맞춤 돌봄 기관에 친환경 전기 차량을 무사히 배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강원도 내 홀몸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2021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신입 회원과 교류하며 봉사 활동 펼쳐

# “함께 나눔을 공유하니 기쁨이 배가됩니다”

기부 스토리를 나누고, 자립 청소년을 응원할 생필품을 포장하며 보낸 뜻깊은 나눔의 시간! 2021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모임 이야기. 글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1



2



3

- 1 기념 촬영 중인 2021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신입 회원 환영회에 참여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
- 2 배우 김나운 씨가 신입 회원 자격으로 참가해 함께 봉사했다.
- 3 신입 회원들은 자립 청소년들에게 보낼 격려의 손 편지를 직접 작성했다.

###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환영회

• 지난 10월 20일,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신규 회원과 함께 생필품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안병근 회장 및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나운 씨도 신입 아너 회원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고인(故人)이 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을 기리는 아너 소사이어티 특별 회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모임에도 장인어른故 김낙현님을 아너로 추대한 318호 신우선씨, 남편故 박민호님을 추대한 334호 임양미씨 가족이 참석해 마음을 더했다. 행사는 신입 회원을 소개하며 각각의 기부 스토리를 나누고,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소년 가장에게 보낼 생필품을 포장하는 봉사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직접 작성한 격려의 손 편지도 동봉해 의미가 컸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안병근 회장은 “신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무엇보다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선물을 전할 수 있어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고인을 의미 있게 기리기 위해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특별 회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2022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 “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해보세요!”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 25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시작했다.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3개월의 나눔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 서울시 대표 나눔 캠페인

• 서울 사랑의열매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2022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이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해 2001년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맺고 민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지 20년이 된 서울시를 대표하는 모금 및 배분

사업이다. 올해도 지난 11월 15일부터 모금을 시작해 2022년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으로 모금한 성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자치구가 협의해 어르신,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 시민의 기초 생계 및 의료비·교육비·돌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해당 자치구에 기부된 기부금은 그 자치

구에 배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복지의 선순환을 강화할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또 일부는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체 복지사업에도 사용해 그야말로 서울 시민을 지키는 복지의 초석이자 자원 마련의 주춧돌인 셈. 이웃을 위한 나눔, 2022 희망은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으로 시작해보자. ♡



### 참여 방법

- 성금** ① 사랑의열매 계좌로 입금 (우리은행 015-176590-13-503)  
 ②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후 기탁서 작성·전달
- 성품** ① 물품 구입 후 영수증과 함께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② 지원 대상 추천(선정) 및 전달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역대 최고액을 기부한 (주)우리텍 임길포 대표이사

#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눔은 지극히 당연한 일”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임길포 대표이사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산소에 가면서 스스로 다짐한 게 있다. 새로 시작하는 회사는 이익을 사회에 나누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고 말이다. 지난 2017년 대구 사랑의열매 역대 최고액인 50억 원을 기부하며, 임 대표이사는 그 약속을 지켰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대구 사랑의열매



### 인생에서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것

• (주)우리텍 임길포 대표이사는 스스로를 ‘촌놈’이 대기업에 들어가 직장 생활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애들도 잘 키우고, 퇴임했으니 운이 좋은 사람이라 말했다. 그는 부단히 노력하며 지금의 성공을 일궈냈지만, 많은 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당연히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우리텍을 처음 시작할 때 이익의 3분의 1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3분의 1은 직원을 위해 사용하고,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경영 방침을 세웠어요.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2005년부터 모으기 시작해 2015년까지 약 50억 원이 통장에 쌓였죠.”

임 대표이사는 처음엔 직접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건비 등 예상치 못한 부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이건 아니다’ 싶었다. 그렇다고 믿고 맡길 만한 단체를 찾는 일은 더 어려웠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아내와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면서 대구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 인재를 양성하는 마음으로

• 투명성, 전문성, 부가 비용 절감 등 그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사랑의열매 기부자맞춤기금 프로그램을 알게



2017년 소선나눔기금 협약식 모습

되면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총 50억 원을 기탁하는 ‘소선나눔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재가 곧 자원이예요. 그럼에도 이공계 기초과학 분야가 홀대받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학생들을 양성할 생각으로 소선나눔기금을 만들었지요.”

소선나눔기금은 임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외에도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과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매년 3억 5,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지금까지 167명의 장학생에게 전달했다. 인터뷰 말미에 문득 ‘소선’이 무슨 뜻이냐고 넌지시 묻자, 임길포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큰딸 이름이 소연, 작은딸이 선연이라서 앞 글자를 따서 소선이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들 이름을 빌려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면 딸들도 나눔 정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도 성공하면 기금에 보태라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웃음)”

올해를 마지막으로 5년간의 기부 약정이 마무리된다. 그에 대한 소감을 묻자 임길포 대표이사의 얼굴에는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흥분함이 스쳐 지나갔다. 앞으로 또 어떤 나눔을 실천할지 세운 구체적 계획은 없다. 하지만 임길포 대표이사의 나눔은 계속된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지 않을까. ♡



울산항만공사·근로복지공단 학습용 태블릿 PC 지원

#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 소외 계층 아이들에겐 온라인 수업 자체가 접근하기 힘든 장벽이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이 힘을 모았다. 글이선희 사진울산사랑의열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한 학습용 태블릿 PC 전달식 모습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학습 등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아졌다. 이렇듯 점점 변해가는 교육 환경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해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나섰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이들에게 학습용 태블릿 PC를 지원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 사랑의열매와 협업해 지원 사

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10월 29일 울산항만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학습용 태블릿 PC 81대(1,460만 원 상당)를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또한 지난해 울산 지역 4개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여해 구축한 온라인 도서관 플랫폼 '울산 e-성균관' 이용 아이들도 같은 날 울산광역시 강남·강북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전달했다. 태블릿 PC와 울

산 e-성균관 이용 아이들은 울산광역시 강남·강북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통해 초·중·고 청소년에게 배부해 학습용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지급 받는 청소년은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전자책과 오디오 북 등 2,600여 개의 콘텐츠를 향후 3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고, 공평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울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울산 사랑의열매 냉난방기 지원 사업

#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응원

지난 11월 2일 울산 사랑의열매는 울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취약 계층 냉난방기 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1년 기획 사업인 포스트코로나 대응 체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이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글이선희 사진울산사랑의열매

이번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취약 계층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하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통해 울산 지역 에너지 취약 계층 1,000세대에 5억 8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지원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울산시 생활보장 담당 및 5개 구·군의 희망복지지원단 담당 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의 연합 회의를 거쳤다. 울산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와 냉

난방기가 없거나 오래된 연식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1,000세대를 선정했다. 이들에게 에너지 효율 1등급 인버터 방식의 냉방기 902대와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난방 매트 98개를 전달하며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울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및 7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 울산 사랑의열매 강학봉 사

무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람이 매섭다. 이번 지원으로 울산 시민들이 추위 걱정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



울산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한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취약 계층 냉난방기 지원 사업 전달식



DGB금융그룹, 푸드뱅크에 친환경 차량 지원

# “덕분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나눔을 전합니다”

DGB금융그룹의 후원과 경북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푸드뱅크 5곳에 친환경 냉동탑차를 전달했다. 환경과 지역사회를 생각한 이번 지원으로 푸드뱅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경북 내 푸드뱅크에 친환경 차량 전달식 모습



DGB금융그룹 임원들의 급여 인상 반납분을 기부해 친환경 물품도 지원할 수 있었다.

### 창립 10주년 맞아 맞춤형 복지사업 진행

매년 가정의 달과 추석, 연말연시 등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나눔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온 DGB금융그룹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자 친환경 LPG 냉동탑차 5대(총 1억 100만 원 상당)를 경북 내 푸드뱅크에 전달한 것. 지난 10월 15일, 경북도청 앞뜰에서 DGB대구은행 임성훈 은행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현 회장,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근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열렸다.

### 결식과 환경문제 해소에 도움 되길

DGB대구은행 임성훈 은행장은 “LPG 냉동탑차 전달과 함께 임원들의 급여 인상 반납분으로 친환경 물품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현 회장은 DGB금융그룹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 친환경 차량이 취약 계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 행사 후 노후화된 차량으로 식품 등 모집한 물품 운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의 푸드뱅크 5곳(청도군기초푸드뱅크, 경상북도광역푸드뱅크, 구미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경산시푸드마켓, 포항우리기초푸드뱅크)에 친환경 LPG 냉동탑차 5대를 즉시 전달했다. 친환경 냉동탑차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도 경북 곳곳을 달린다. 🍀

### interview

#### 경상북도광역푸드뱅크 김원구 과장

**노후화된 냉동탑차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기존 차량의 연간 운행 거리는 약 30만 킬로미터 이상, 2002~2007년식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후 차량은 계속 운행할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중요 부품 및 냉동장치 고장으로 소외 계층에 물품을 제공해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공해 냉동탑차를 지원받았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먼저 DGB금융그룹과 경북 사랑의열매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약 80억 원 이상 규모의 기부 물품을 지속적으로 소외 계층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푸드뱅크 사업 차원에서 상당히 뜻깊습니다.

**지원받은 냉동탑차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자 및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복지 사업입니다. 경북 지역은 물론 타 시도에서 신선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냉동탑차는 이러한 물품을 수령해 각 지역의 소외 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층 신선하고 안전하게 푸드뱅크의 물품을 기다리는 이웃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친환경 냉동탑차



도내 기관과 단체, 기업까지, 협업 통해 문제 해결 나선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 “안전 1번지 경남, 함께 만들어가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도내 기관과 단체,  
기업이 모두 손잡고 공동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

글강은진 사진경남 사랑의열매



안전 1번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스쿨존 내 옐로카펫·노란발자국·주정차 금지 메시지 작성 등을 설치했다. 사진은 캠페인에 참여 중인 초등학생들

##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도전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안녕한 경남, 안전 1번지 경남’이란 모토 아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1년 올해만 24개 사업을 추진했을 정도. 진행한 사업은 크게 교통안전, 홀몸 어르신 및 코로나19 취약 계층의 안부, 그리고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행동 등 세 가지다. 특히 경남 지역의 기계·조선·항공 산업 등 풍부한 기업 자원을 활용해 기업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제시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봉사 활동으로 컨설팅해 기업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도 단위 기관 단체와 공동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실천 행동과 함께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약 10억 원 상당의 자원 개발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1



2

1 기업 임직원들의 DIY 키트 작업 모습 2 탄소중립 실천 공동 행동에 나선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유관 기관 관계자들

### ‘안녕한 경남, 안전 1번지 경남’ 2021 주요 사업 리스트

- ① 교통 안전문제 해결, 함께해~
  - 취약 계층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리어카를 통한 자활 지원  
폐지수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고 맞춤형 안전 리어카 개발 진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2사업장 지원)
  -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 도우미 개발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이동 보조 기구 ‘사랑의 구르미카’ 개발 지원 (한화디펜스 1사업장)
  - 아이의 안전한 스쿨존 구축  
도내 총 38개 초등학교 통학로인 스쿨존 내 옐로카펫·노란발자국·주정차 금지 메시지 작성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한국남동발전 지원)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키트 제작 지원  
여성 1인 가구 210가정에 홈캠·클라스락·터치소리 3종 안심홈 키트 지원 (경남개발공사, 한화디펜스 지원)
- ② 이웃의 안부 묻기, 함께해~
  - 쿨한 할배 할매 안녕한 여름 나기 지원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여름 이불, 대자리 등 쿨 키트 6종 전달 (경남 사랑의열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협업)
  - 기업 임직원의 안녕 키트 참여 및 제작 지원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 제공
- ③ 코로나19부터 탄소중립 및 위기 대응까지, 함께해~
  - 코로나19 취약 계층에 응원 키트 전달  
창원 관내 11개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군 장병 등에 응원 키트 전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정밀기계, 한화디펜스 1사업장)
  -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군 공동 실천 대응  
환경정화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활동 등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실천 행동



부산 지자체 최초로 나눔리더 6명 동시 가입

# 나눔문화특구 남구를 향한 행복한 동행

부산 남구는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를 새로운 100년의 비전으로 세웠다. 이 슬로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지역사회를 나눔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남구에서 동시 가입한 6명의 나눔리더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클이선희 사진부산사랑의열매



부산 남구청에서 진행한 나눔리더 6명의 단체 가입식

### 부산 자치구·군 중 최초 사례

- 지난 11월 4일 부산 남구청에서 박재범 남구청장, 부산 사랑의열매 박은덕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가입식이 열리기 전부터 큰 관심이 집중됐는데, 부산 16개 자치구·군 중 6명이 동시에 나눔리더에 가입하는 최초 사례이기 때문. 평소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힘써온 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 6명의 기업 대표에게 나눔을 제안했고, 흔쾌히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며 가입까지 성사될 수 있었다. 가입식 행사에서 부산 사랑의열매 박은덕 사무처장은 “지역과 연계한 나눔리더 단체 가입은 남구가 부산 최초 사례”라며, “남구 나눔리더들의 온정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청소년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어

- 가입식 행사에는 남구 1호 나눔리더 부산식품 김희규 대표를 시작으로 재성물류 김은정 대표, 동우식품 정훈 대표, 시티캡 정현돈 대표, 신우팩토리 최홍조 대표, 김종성 대표가 차례로 이름



남구 나눔리더 1호 부산식품 김희규 대표(오른쪽)에게 인증패를 전달하는 모습

을 올리며 부산 남구 나눔리더 6호까지 가입을 마쳤다. 이들의 기부금은 남구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지원해 지역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복지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이렇게 앞장서주시는 분들이 있어 남구가 더 밝고 따뜻해지고 있다”며 “남구 1호 나눔리더 탄생과 6명의 나눔리더 동시 가입을 계기로 우리 남구에 착한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처럼 가슴 따뜻한 나눔리더가 계속 등장해 나눔문화특구 남구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  
이렇게 나눔에  
앞장서주시는  
분들이 있어 남구가  
더 밝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

충남  
세종  
대전  
충북





연말 캠페인 앞두고 충남 전역 누비는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종 회장

# “직접 현장을 누비는 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 마음입니다”

취임 2년 차를 맞는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종 회장의 활약이 눈부시다. 취임 첫해부터 충남지회는 전국 지회 통틀어 역대 최고 나눔온도를 달성했고, 1인당 모금액도 1위다. 모금을 위해 직접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길 주저하지 않는 성우종 회장의 진심이 만들어낸 성과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 캠페인 기간, 온전히 열매 회장으로만

- 지난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랑의열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말 캠페인을 앞두고 예상 모금액을 조정하는 등 비상이 걸린 것.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우리 국민의 이웃사랑은 사랑의열매 역대 사상 최고 모금액을 돌파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 더욱 돋보이는 곳이 있었다. 바로 충남지회다. 캠페인 기간 동안 중앙회를 포함해 17개 전국 지회를 통틀어 사랑의열매 역대 최고 나눔온도를 달성하고, 1인당 모금액 또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



충남 사랑의열매 회장 취임 2년 차를 맞는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이사.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12월이 되면 충남 전역을 직접 누빈다.





성우중 회장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2021년 '제3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에서 사회 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천안시를 시작으로 서산시,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등등 순회 모금을 하면서 충남 전 지역 시·군·구 지자체 단체장님들을 다 만났어요. 직접 만나면 아직도 사랑의열매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성금을 모으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해드리며 협조를 구해나갔지요.”

지자체장들뿐이 아니다. 지역 유력 언론사나 유력 기관과 기업들을 모두 직접 찾았다. 그야말로 캠페인을 직접 발로 댄 셈. 성우중 회장은 중견 건설 회사 (주)도원이엔씨 대표이사다. 하지만 캠페인을 시작하는 12월이 되면 회사 일정을 모두 빼다시피 하고 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나눔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삶으로 보여줘**

- 성우중 회장의 삶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그 자체다. 2011년 충청남도청으로부터 도내 어려운 대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나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3호로 가입하고, 동생인 (주)럭스피아 성석중 대표와 아들인 터치스톤 성연수 대표까지 권유해 가입시켰다. 지금까지 성우중 회장이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금액은 회사와 개인 명의를 합쳐 30억 원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충남 지역 장애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장애인 가정 총 274쌍의 합동결혼식 비용을 후원해왔으며, 2014년부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아 명절마다 선물을 챙기고, 장애인 휠체어 기증 사업을 지속하는 등 장애인을 각별히 챙기고 있다. 또 친형인 고(故) 성완중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도 동생 성석중 씨와 함께 성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그의 나눔은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성우중 회장은 기업가로서 나눔은 당연한 일이라 일축한다.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업가의 사회 환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하고, 더욱 노력할 참입니다. 또 나눔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웃음)

**기업가의 나눔은 당연, 다시 현장으로**

- 성우중 회장의 나눔은 부모님을 뿌리로 한다. 어린 시절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도 언제나 “가까이 있는 어려운 이웃부터 챙겨주는 게 복받는 길”이라며 몸소 실천한 부모님의 모습이 그에게 산 교육이 된 것.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나눔

명문가라는 명예로운 이름 뒤에는 성 회장의 부모님이 있다.

“장애인분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다 보면, 평생 처음 받아보았다는 분들도 제법 계세요. 누군가에게 처음 선물을 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경험해보기 전엔 알 수 없는 큰 행복이자 기쁨이랍니다.”

12월이다. (주)도원이엔씨 대표이사 성우중이 아닌, 충남 사랑의열매 회장 성우중의 시간이 왔다. 성 회장은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묶는다. 우리 이웃을 위해 충남 전 지역을 다시금 누빌 참이기 때문이다. 조용한 음성 뒤에 뜨거운 마음을 숨기고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성우중 회장, 그의 길을 따라가보자. ❀



# Noblesse Oblige

“기부를 쑥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저 역시 그랬지요.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 나눔을 꼭 경험해보세요!”



성금 1억 원 돌파,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의 이웃사랑 모금 캠페인

#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만들어낸 기적을 아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고사리손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 저금통 모금으로 성금 누적액이 1억 원을 돌파한 것. 이웃사랑은 물론 나눔 교육까지 함께 하는 따뜻한 소식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금을 세종 지역 미취학 아동 63명에게 3,150만 원을 생계비로 지원했다.

- 1 성금 기부를 직접 경험해보는 어린이
- 2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착한가정 캠페인 협약식
- 3 사랑나누기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여한 후 기념 촬영 중인 어린이집 원생들



1



2

### 이웃사랑 배우는 저금통 모금

• 세종시에서 아름다운 기적의 소식이 들려온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원생들이 모은 성금이 무려 1억 원을 돌파한 것. 2015년 1,8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억 5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자신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4~7세의 어린이집 아동들이 부모님 심부름이나 착한 일 등을 해 받은 용돈을 저금통에 모아 만든 성금이라 모두 ‘고사리손의 기적’이라 부른다. 이 같은 기적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 사랑의열매는 2014년 매년 어린이에게 저금통을 나눠주고 이웃 돕기 성금을 조성하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협약을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와 체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나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원생들에게 저금통을 기부하는 현장 모금 행사도 진행하는 등 이웃사랑부터 나눔 교육까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부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야말로 나눔의 산 교육이 이루어진 셈이다.

### 착한가정 가입으로 가족들 동참

• 어린이집 아동들의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모금 캠페인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다. 착한가정 가입으로 가족들까지 기부에 동참한 것. 2016년 세종 사랑의열매는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와 착한가정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맺고 가족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모금 캠페인과 착한가정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은 모두 매년 세종시 관내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들을 돕는 데 지원한다.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육태유 회장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원생들이 모아준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어린이집 원생들만이 전개하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행사는 이제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고유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시 관내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들은 언제든지 세종 사랑의열매를 통해 신청 또는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The Best 착한가게 선정된 백년 맛집, 태화장

#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장 될 터”

대전을 대표하는 중국요리의 명가, 태화장이 올해 'The Best 착한가게'로 선정됐다.  
10여 년간 지속해온 기부는 대전 시민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이었다.

글강은진 사진 대전사랑의열매



착한가게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 중인 고록승 사장



### 대전을 대표하는 중국요리의 명가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 속에 태화장에서의 맛있는 추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화장은 1954년 대전시 동구에 문을 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 동안 그 명성 그대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일까, 대전시의 분야별 기록을 모은 <대전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된 중국집으로, 25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대전 동구 '장수&이음가게', '백년가게' 등에 선정되며 태화장이라는 이름 앞에 '최초', '유일', '최고' 등의 수식이 붙었다. 그런데 여기에 명예로운 타이틀이 추가됐다. 바로 'The Best 착한가게'다. 대전 지역 약 1,300여 개 착한가게 중 단 50여 곳만 선정하는 The Best 착한가게에 올해 태화장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태화장의 기부는 고록승 사장이 우연한 기회에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시작했다.

### 받은 만큼 돌려주고파

2012년부터 시작한 태화장의 착한가게 기부는 올해로 10년째다. 긴 시간 동안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고록승 사장의 의지가 컸다. 음식에서 '정성'을 고집해온 부친의 음식 철학을 지켜온 그가 기부 또한 똑심 있게 이어온 것. 하지만 고록승 사장은 나눔의 공을 대전 시민에게 돌린다. 받은 게 있다면 꼭 돌려주고자 하는 고록승 사장은 "태화장의 성공은 대전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전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말이다. 비록 물려받은 사업장이라고는 하나, 오늘날의 명성을 이루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자신의 고생 또한 이들의 도움이 많았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고록승 사장이 자녀나 손주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주위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말해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다. 착한가게의 착한 사장님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맛의 명가에서 나눔의 명가로 명성을 더하는 태화장의 미래가 더없이 따뜻하다. ❀

“저 역시 힘든 시절을 겪었고,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태화장의 음식을 맛보실 수 있도록 가격을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늘 손주 녀석에게 말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할아버지인 나한테 말해달라고요. 저의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상을 나눔으로 채우는 '충북 나눔리더 1호' 바른컴퓨터 김성열 대표

“나누려고 돈 벌니다!”

충북 지역에서 김성열 대표의 도움을 받지 않은 단체가 있을까 싶다. 더 많은 나눔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돈을 아끼는 그의 일상은 진정한 나눔리더의 모습 그 자체다. 글 강은진 사진충북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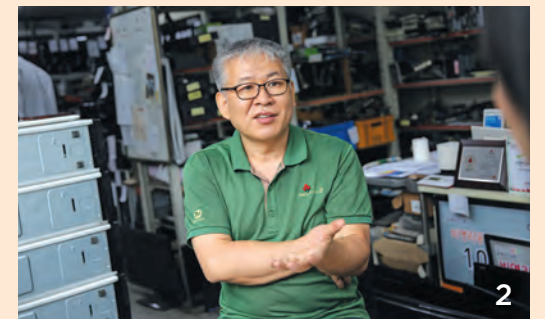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

김성열 대표는 충북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1호'다. 김 대표가 운영 중인 청주시 사직동의 바른컴퓨터가 2014년 충북 착한가게 310호로 가입하며 사랑의열매와 나눔의 길을 동행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기준, 바른컴퓨터로 78회에 걸쳐 950여만 원, 개인 명의로 41회에 걸쳐 2,500만여 원을 기부해 누적 횟수 119회, 누적액은 3,400여만 원이다. 그뿐만 아니다. 충북 사랑의열매 외에도 (사)충북시민재단과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도 꾸준히 기부해 두 단체의 누적 후원금만 1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복지기관에 컴퓨터 기증 및 무상 점검, 장애인 가정의 집수리, 청소 등 봉사 활동에 김성열이라는 이름을 숨긴 채 기관을 통해서 기부한, 수치로 기록되지 않은 후원 내역까지 더하면 김 대표의 나눔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오죽하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김성열 대표가 있다”는 말이 있을까.

더 큰 나눔이 삶의 목표

김성열 대표는 기부란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 또한 나눔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싸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돈을 아끼고 모은다. 가게가 큰 수해를 입기도 했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집에 쌀이 넉넉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김 대표에게 나눔은 그야말로 일상을 채우는 습관 그 자체인 셈. 자신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일찍부터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를 나눔의 길로 이끈 건 첫째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그 이후 나눔과 봉사는 김성열 대표에게 운명이 됐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나눔을 이어가는 자신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비난해도 단 한 명만 자신을 보고 나눔에 동참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 바로 김성열 대표다. 당당히 “더 많이 나누고 싶어 돈을 벌다”고 말하는 그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정한 나눔리더다. ❀

“더 큰 나눔을 위해 기꺼이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김성열 대표. 그의 일상은 이처럼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1 2018년 나눔리더 가입식  
2 김성열 대표가 운영 중인 바른컴퓨터, 충북 착한가게 310호다.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

전남  
제주  
광주  
전북





작은 시작이 만드는 큰 나눔의 여정에 나선  
(주)한빛산업개발 이상호 대표

# “나눔의 기적,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나섭니다”

회사가 큰 수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다른  
수재민들이 생각났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무엇이 필요한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내디딘  
나눔의 길 앞에서 신발 끈을 단단히 묶었다.  
힘닿는 데까지 가볼 참이기 때문이다.  
(주)한빛산업개발 이상호 대표 이야기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 아직은 부족한 사람

● (주)한빛산업개발 이상호 대표를 만나던 날. 아침부터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치나 싶으면 세차  
게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그런 곳은 날씨와 달리 이상호 대표  
는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추운데 오느라 고생  
하셨겠다는 따뜻한 말도 잊지 않았다. 과연 12월 표지 주인공  
에 걸맞은 인물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웬걸, 인사를 나누자마  
자 ‘자신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금세 걱정 어린 표정  
을 짓는다.

“《사랑의열매》 12월호 표지 모델 섭외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  
요. 제가 그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요. 더 훌륭한 분이  
많은 걸 알기에 죄송하고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응원으로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호 대표의  
좌우명이자  
삶의 철학인  
우공이산(愚公移山).  
우 대표 집무실에  
걸린 액자에는  
어리석을 우(愚)  
대신 자신의 성씨  
단양 우(禹)로 바꿔  
써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





우 대표는 <사랑의열매> 표지를 통해 많은 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열매에 중요한 연말 캠페인이 시작되는 시기이니만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 대표의 집안은 광주 지역에서 유명한 나눔 명문가로, 우 대표 또한 그동안 조용히 뒤에서 조력해왔다. 그러다 뜻밖의 일을 당하며 전면에서 나서게 됐다. 바로 수해다.

#### 회사의 수해 피해, 나눔으로 이어져

- 지난해 광주를 비롯해 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수해가 났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주)한빛산업개발 건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근처 제방이 무너지며 일대가 침수된 것. 회사에서 보트를 타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한다.

“몇 해 전부터 전남 지역에 계속 수해가 났어요.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침수돼 수해를 당해보니... 수재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그길로 바로 수해 지역 군수님들께 전화를 드렸죠.”

이상호 대표가 이끌고 있는 (주)한빛산업개발은 의장, 바닥재, 벽지 공사를 주로 하는 실내 건축 회사다. 수재민들의 보금자리 복구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벽지를 긴급 지원했다. 전남 구례를 시작으로 화순, 그리고 회사가 위치한 광주 북구까지 우 대표의 기부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화순군 노인복지센터에 3,0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기부하며 나눔의 규모도 키워갔다.

#### 우공이산의 힘, 나눔으로 보여줄 터

-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이상호 대표의 좌우명이자 삶의 철학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이 말은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우 대표의 삶이 그랬다. 빛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천천히

“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동전이라도 기부해보세요!  
기부하면 정말 기뻐요.  
자려고 누우면 웃음이 절로 나죠.  
그러니까, 또 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어요.  
해본 사람만 아는 이 기쁨,  
한번 누리보세요.

”

가더라도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우공이산’이란 말을 새겼다. ‘우상호’라는 이름 석 자를 내 걸고 나눔의 길을 나선 우대표의 마음가짐 또한 그렇다.

“돈이 많아야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은 단돈 1만 원이 절실하거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자동차를 기부한다면 10년이면 10대요, 20년이면 20대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우공이산, 언젠가 나눔이라는 큰 산도 옮길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상호 대표는 기부를 한 뒤에는 너무 기뻐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웃음이 절로 날 정도라고 했다. 도움을 준 자신이 더 행복하게 신기하기만 하단다. 연말 캠페인을 앞두고 우 대표는 많은 나눔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말을 아낀다. 오래도록 걸어갈 나눔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큰 기적을 만들어낸 이상호 대표의 나눔에 응원을 보낸다. 미리! 🍀



제주 아너 회원들의 특별한 일주일 '아너 주간'

# “나눔으로 제주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아너 주간 기념식 및 2021년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를 개최했다. 글강보라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아너 가입률 전국 1등에 빛나는 제주 아너들이 사랑의 나눔을 다짐하고 있다.

### 나눔으로 제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매월 12일은 사랑의열매에서 제정한 '나눔의 날'로,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난해부터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집중 조망하기 위해 매년 11월 12일 전후를 '아너 주간'으로 선포해 운영하고 있다. 아너 주간에는 •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 • 아너 홍보 활동 • 신규 회원 가입식 • 아너 신문 광고 등을 집중 추진해 보다 효과적이고 파급력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을 전개한다. 특별히 '제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너 회원이 단순한 고액 기부자가 아닌, 나눔으로 제주를 변화시키는 주체임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서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이철수 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회원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너 회원이 제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여정에 함께해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사랑의열매 회장이자 제주 아너 1호 회원인 연강의료재단 강지연 이사장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는 제주 사랑의열매 강지연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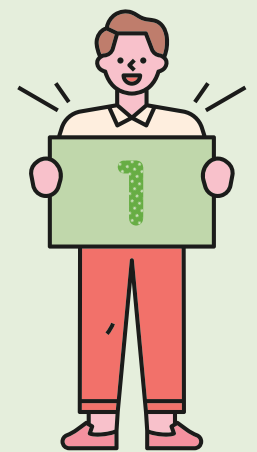


제2회 아너 주간을 선포하고 있는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이철수 회장

### 나눔 전국 1등의 명성을 이어가다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나눔 활동 아래 누적 기부금 110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통 제주의 경제 규모를 1%라고 말한다. 제주 지역 내 총생산지표가 전국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표로 따지면 제주의 아너는 25명 정도여야 하는데, 실제 아너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124명이다.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5배에 달하는 기적이 탄생한 것이다. 실제로 제주는 인구 1만 명당 아너 가입률이 전국 1위에 달하는 나눔의 땅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작년과 올해 가입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2020년은 제주의 경제성장률이 -7.5%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해였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3%로 전국 평균 2.5%를 웃도는 상황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주 아너는 전년도 9명, 올해 11명이 새로 가입했다(2019년 4명 가입). 나눔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실천을 보인 것이다. 아너의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도 자랑이다. 음식점과 카페, 마트, 안경점 등 일상 곳곳에 고액 기부자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 사랑의열매에서 아너 주간을 제정한 것도 제주 아너들의 특별함을 자축하고, 성과를 널리 알려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제주의 나눔 정신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





‘KEPCO 빛드림 캠퍼스’로 돌봄 청소년의 학습 지원 나서

# “우리의 목표는 멘토와 멘티의 동반 성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격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KEPCO 빛드림 캠퍼스’를 운영하며 돌봄 청소년의 학습 지원에 나섰다. 글 강보라 사진 광주 사랑의열매



한전이 후원하는 대학생 봉사단 KEPCO 빛드림 캠퍼스의 출범식 모습.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며 학습 지원과 정서 교류, 진로 탐색 등에 나선다.



멘토와 멘티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으로 환경과 건강을 지켰다.



멘토로 선정된 100인의 대학생은 장학금과 취업 상담을 지원받는다.

### 학습 사각지대의 멘티를 구하라

•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공교육에 의존하던 학생들은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더 못하게 되는 학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KEPCO 빛드림 캠퍼스’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배움을 나누는 데 열정이 있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광주·전남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 100명을 학습 멘토로 선정했다. 이들은 여름방학 기간 주 2회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초·중학생 학습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환경 정화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교

육·정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전용지역센터에서 활동한 대학생 표태린 멘토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5~6학년이면 구구단이나 곱셈·나눗셈은 당연하게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대학생 멘토들은 초등 멘티들의 상황에 맞춰 기초 학습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갔다. 이처럼 학습 플래너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지원을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공부 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대학생 멘토에게 장학금과 취업 조언까지

• KEPCO 빛드림 캠퍼스가 기존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멘토인 대학생의 성장에도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발된 대학생 멘토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전 임직원과 광주 지역 시니어 그룹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데이’를 운영해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무했는데, 한전의 현직 멘토님 덕분에 취업 준비부터 기업 선택의 이유, 직무 설명까지 생생하게 전해 들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정수연 멘토)

이런 특전 덕에 취업을 앞둔 졸업반 대학생 멘토들에게 봉사과 취업을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KEPCO 빛드림 캠퍼스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배우며 성장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빛으로 가득한 내일, 이들은 빛드림 캠퍼스에서 꿈을 꾸다. 🍀



자활·사회적기업 착한가게 가입식 줄이어

#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작은 기부

나눔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미루는 사람이 많다. 또는 많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전북에서는 이런 나눔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다줄 '착지만, 큰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전북 사랑의열매



### 사회적기업 20개소 착한가게 단체 가입

새샘노인복지센터, (주)아툼이엔지, 경제과학진흥원, 중노인노인요양원, 건강드림, 엘림노인요양원, 삼성화재, 더행복한데이케어센터, 기린요양원, 알티스에너지, 좋은산업, 공간활용, 무지개노인복지센터,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노무법인이상, BS통신, 무지개요양원, 굿모닝보청기, 전주시민장례문화원, 월드컵인테리어

- 지난 9월 29일 전북 내 사회적기업 20곳이 한 번에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며 전북 착한가게가 3333호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기업의 대표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을 모은 것. 가입식에 참석한 한 대표는 “월 3만 원 기부가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혼자서 참여하기에는 망설

여졌다”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단체로 가입하니 스스로 열심히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참여한 동기를 밝혔다. 또 다른 대표는 “나눔은 마음이 민들레 씨앗처럼 퍼져나가 함께 사는 사회가 형성되면 좋겠다”며 나눔이 전북 곳곳에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다.

###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자활 기업 6개소 착한 나눔 실천

강선생아로마힐링전문샵,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나눔재가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유)이크리월드, 전주세탁나라



- 앞선 7월에는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전북 자활 기업 6곳이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와 착한일터 캠페인에 동참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착한일터에 가입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이웃의 자활을 돕는다. 또한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을 통해 육성된 자활 기업 6곳도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했다. 착한가게 가입으로 '착한기업'이 된 자활 기업은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받은 나눔을 되돌려주는 남원시 자활 가게 3개소

베트남골목식당&카페홍, 미래티 남원도통점, 매머드익스프레스 남원의료원점

- 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 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베트남골목식당 1호점을 개점한 데 이어 올해 2호점 미래티 남원도통점, 3호점 매머드익스프레스 남원의료원점을 개점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 자활 가게 3곳이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한 것. 그동안 기부받는 대상이던 자활 참여자들이 이제는 나눔의 주체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현재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사랑의열매는 전국의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육상·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며 상생의 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누리봄에서는 쉼터 퇴소 후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누리봄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곳이지만, 평균 14~15년 사용해 노후화된 가구와 가전제품의 잦은 고장이 입주자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상황은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양육 스트레스와 부양 부담을 가중시켜 아동의 안정된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2021년 나눔과꿈 사업으로 선정해 가전제품, 가구 및 생활에 필요한 주방 도구를 교체했다.



1 다 같이 걸어 보라매 데이 캠프에서 문화 체험 중인 참여자들  
2 이번 지원으로 구매한 주방 도구 및 소형 가전



## MINI INTERVIEW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누리봄 윤미소 대리

-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생존자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폭력이 난무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열악한 곳에 머물며 또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다면요?** 주거 지원 1호집에 입주한 지유(가명)네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가져본 자신의 방, 큰 냉장고와 에어컨을 신기해하며 재잘재잘 말하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또한 그 집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 **해당 사업에서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과꿈 지원은 숨통 그 자체였습니다. 덜 덜거리는 세탁기, 냉기가 빠져나오는 냉장고, 문짝이 떨어진 장롱 등 답답한 상황에서 나눔과꿈은 담당 실무자에게 치유였고, 입주자에게는 환대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적어도 공포에 떨지 않고, 맘 편히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해양보호생물종 보전을 위한 교재 제작 배포 및 인식 증진 교육 사업

E-learn 바다, RG



〈우리가 몰랐던 상괘이 이야기〉 교재 표지

생태지평연구소는 바다가 인접하지 않은 내륙권 청소년과 함께 해양 환경 교육 및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교육, 현장 체험, 여행 등이 어려워지면서 해양보호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인식 증진을 목표로 교재를 기획하게 됐다. 나눔과꿈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해안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종의 보전 방법 등을 담은 놀이형 교육 교재 ‘이런 바다책(E-learn Sea Book)’ 제작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누구나 쉽게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와 그림을 구성하고, 퀴즈와 놀이, 참고 동영상(QR코드 삽입) 등으로 아이들이 혼자서도 즐기고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작한 5,000부는 내륙권 양육 시설과 소규모 초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생태지평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e-book, 인쇄 책자 PDF를 제공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생태지평연구소 홍숙경 책임연구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글자만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운 개념은 영상으로 보여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한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과꿈은 저희에게 확장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회가 많아져 좀 더 많은 아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생태지평연구소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는 확장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재밌는 환경 교육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흔히 캠프를 단발성 사업으로 인식하는데, 어릴 때 경험한 캠프나 여행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잊었다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죠. 그때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 삶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아이를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 **많은 보호생물 중 상괘이, 흰발농게를 교재에 다룬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종을 찾았습니다. 갯벌 하면 쉽게 떠올리는 생물이 게여서 간척과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흰발농게를, 그리고 정말 잘 알지 못해서 사라지고 있는 상괘이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 **놀이형 교육 교재가 무엇인가요?** 생물종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함께 넣어 구성했어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괘이가 왜 줄어들는지 이야기로 재미있게 읽은 후 가벼운 놀이 페이지의 퀴즈, 낱말 풀이, 숨은그림찾기 등을 풀며 끝까지 책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 **교재를 제작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나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되 도감처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이 생물종을 궁금해하고, 스스로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고 쉬운 정보만



1 교재에 실린 흰발농게 사진  
2 흰발농게의 생애를 재밌고 쉬운 이야기로 담았다.  
3 〈이게 무슨 일이게?〉와〈이게 무슨 일이게?〉와〈이게 무슨 일이게?〉 표지





**캄보디아 프렉롱  
지역 주민의  
농가 소득 창출**

**기후변화  
적응 안전망  
조성 사업**

캄보디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벼농사를 짓는 바탐방주의 프렉롱 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에 피해를 보고 있다. 식량 안보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대체 생계 수단이 부족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사)한국해비타트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되며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분석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조·벽체·자재 등을 결정하는 등 표준 주택 디자인을 개발하고, 각 가정의 수요에 따라 빗물 집수 장치, 소규모 관개용수 공급 시스템, 바이오 가스 쿡스토브 등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적용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주민에게 기후변화 적응형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소득원의 다변화를 위해 집 주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홈 가드닝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주민에게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해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MINI INTERVIEW**

한국해비타트 강영숙 매니저

-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각 연차별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세 가지 안전망, 즉 물리적 안전망, 경제적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차 연도에는 지역사회 기반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2차 연도에는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 3차 연도에는 성과 공유 포럼 개최를 통해 타 지역의 지역사회 기반 적응 시스템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 **현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1차 연도 핵심 참여 가정 10가정 중 8가정의 기후변화 적응 주택 신축·개축·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두 가정을 위한 주택 건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기술 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제법 강한 폭풍의 영향으로 프렉롱 지역의 주택 16채가 파손된 반면에,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한 주택은 파손되지 않아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에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다면요?**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소른 콜·라타나 부부입니다. 주택을 지원하기 전에는 다섯 식구와 소까지 한 공간에서 살았는데, 주택 지원으로 가족만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단열도 되고 외부 소음까지 차단되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부부는 소득 증대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집 앞에 텃밭을 가꾸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적용하면 전에 비해 소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앞으로도 기후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빈곤하고, 취약한 가정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요. 이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안정적인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하고, 가정의 울타리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렉롱 지역의 7개 마을에서 일어난 작지만 큰 변화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주변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기후변화 적응 주택 전경 2 프렉롱 지역 기후변화적응위원회 미팅 3 기후변화 적응 주택에 입주한 참여자 가정



운명처럼 시작한 나눔, 농업회사법인(주)제우스 김한상 대표

## “제가 경험한 나눔의 기쁨,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달변가였다. 그러나 기부에 대한 질문엔 좀처럼 답하지 못했다. 마치 왜 밤에 잠을 자나요, 같은 당연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나눔의 길,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될 일이었다. 그의 이야기길 듣고 있자니 말이다. 참 좋은 사람 김한상 대표다. 글 강은진 사진 김기남

### 그럴 줄 알았던 사람

‘좋은 사람’이란 말이 있다. 아마도 김한상 대표를 두고 있는 말 같다. 김한상 대표의 첫인상도, 이야기를 나눈 후 기억도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네 글자였기 때문이다. 아니, 다섯 글자 되시겠다. 참.좋은.사람.

“아너 가입을 권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고 답했죠. 기부 약정서에 사인하면서 정말 기뻐던 기억만 나요. 주변 반응요? 다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한상 대표는 지난해 6월 아너 소사이어터에 가입, 제주도 109호 회원이 되었다. 기부 결정

부터 기부 후 주변 반응까지 싱겁기 그지없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마치 흥시 맛이 나서 흥시라 답했다던 것처럼 말이다. 당연한 질문에 답을 하려니 곤혹스러웠을 김 대표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 계기를 물으니 비로소 긴 이야기가 시작됐다.

어느 날, 김 대표가 신입하던 직원 한 명이 그를 찾아와 어렵게 말을 꺼내더란다. 조금 아픈 자신의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 만한 특수 어린이집을 알아봐주실 수 있느냐는 청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대표는 머리를 한 대 세계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1년 전 첫아이를 낳고





마냥 행복하게만 지내는 줄 알았던 직원이었다. 대표로서 직원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어린이집을 찾아 나선 게 김 대표의 운명 같은 나눔의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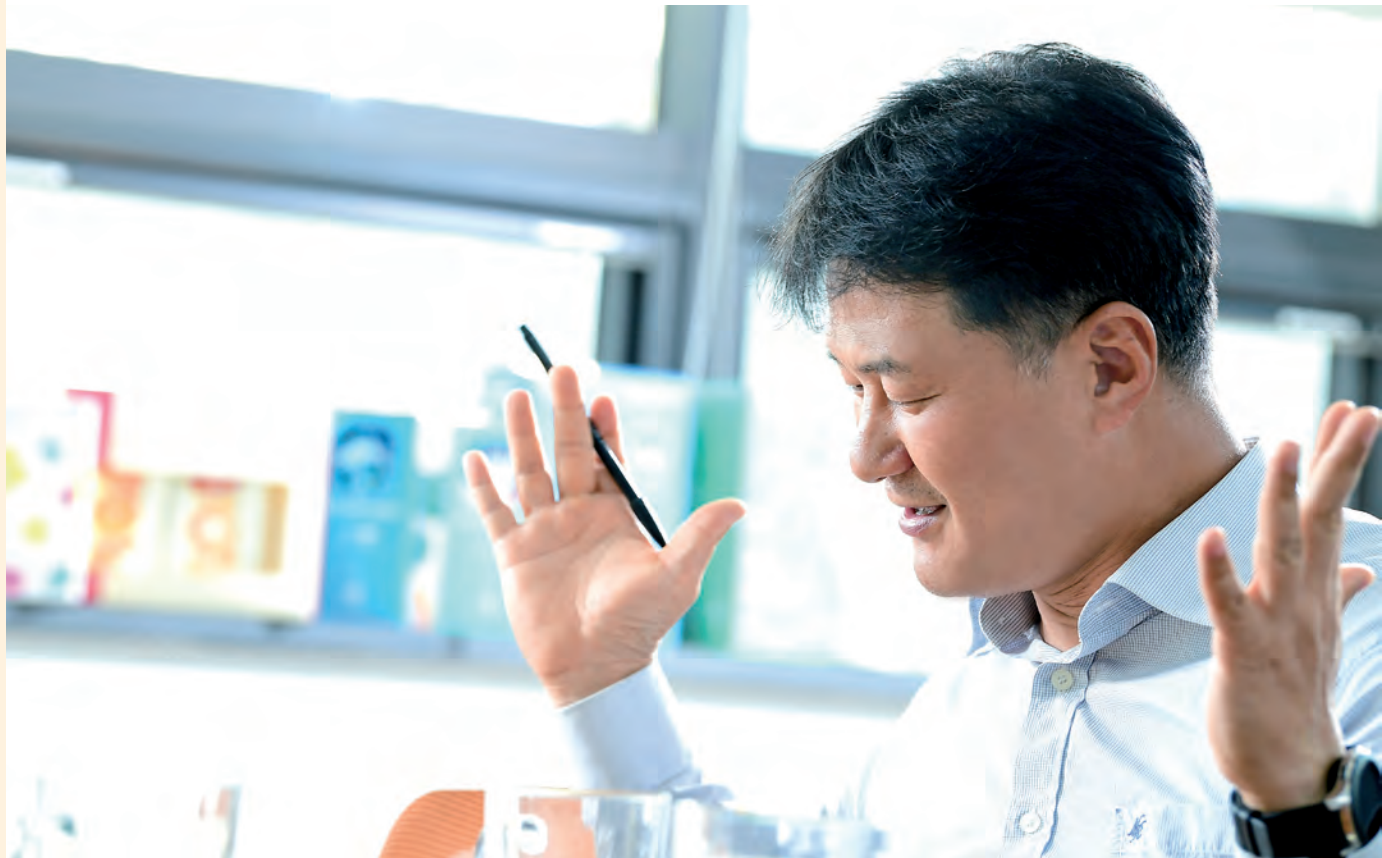
###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길로 제주도 전체를 뒤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좋다는 곳을 직접 가봤는데, 장애 시설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런 곳에 차마 우리 지우(가명)를…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몰랐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목격한 거예요.”

담담하기만 하던 김 대표는 직원 아이를 “우리 지우”라 부르며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김 대표는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물었고, 그렇게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으며 아너 가입까지 하게 됐다.

“그땐 그게 좋은 일인지 뭔지 몰랐어요. 우리 직원들 가정까지 내가 돌봐야겠다. 그리고 우



“**선행이니 기부니, 사회 공헌이니 하는 말들은 저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요. 제가 경험한 이 나눔의 기쁨을 더 많은 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행복하거든요.**”

리 지우가 커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딱 두 가지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작년 부터 장애인을 대거 고용해 지금은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됐을 정도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지우가 나중에 입사할 수 있잖아요.”  
거액의 기부부터 지우의 입사까지, 시종일관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김 대표에게 “대단하다”는 찬사가 때 묻은 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김 대표의 뜨거운 선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도 내 첫 마스크 생산이 대표적인 예다.

### 내게는 당연한 일들, 계속해나갈 것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마스크 대란에 빠졌을 때, 김 대표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생산에 돌입해 제주도 방역 체계 구축에 일조함

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까지 했다. 농업 회사에서 웬 마스크 생산인가 싶지만, 타이백 농법 자체가 바로 마스크 원단 재료였던 것. 당시 시세가 평소보다 1,000배 넘게 폭등했지만, 김 대표는 질병관리청에 먼저 연락해 원단을 평소 가격에 제공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 않은 이야기다.

“모르는 사람은 마스크 만들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요.(웃음) 그러게요, 말을 하다 보니 이게 사회 공헌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 한 번도 선행이니 사회 공헌이니 거창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길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주인 찾아주잖아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 김 대표에겐 그저 당연한 일이 된다. 김한상 대표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는 제주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망 스마트 팜 기업 중 하나다. 농자재 유통부터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 및 당도와 크기까지 취향대로 선택해 주문할 수 있는 감귤 쇼핑몰 달다린([www.daldarin.com](http://www.daldarin.com))까지 오픈하며 첨단 농업을 선도하고 있다. 건설 회사를 다니다 우연히 감귤 타이백 농법에 매료돼 창업하게 됐는데, 처음엔 돈이 없어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한편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해 오늘의 제우스를 일궈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곧 제우스의 발전”이라 말하는 사람이 김한상 대표다. 그의 당연한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지, 기분 좋은 기다림이다. 🍀



# 더없이 완벽한 눈꽃 세상, 무주

완벽한 겨울 왕국! 나뭇가지마다  
만발한 눈꽃이 새하얀 사슴뿔처럼  
엷히고설켜 눈부시다.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설경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사전에 있기는 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곳, 무주다.

글 강은진 사진 무주군, 한국관광공사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따라 정상인  
항적봉(1,614m)까지  
올라가는 길목에는  
상고대가 지천이다.  
의연하게 눈을 받치고 있는  
주목들도 백이다.  
"백두대간 중 덕유산의  
겨울 경치가 으뜸이다"라는  
말은 과연 허언이 아니다.







눈을 받치고 있는 주목들도 겨울 덕유산의 빼이다.



1

### 눈꽃 여행의 메카, 덕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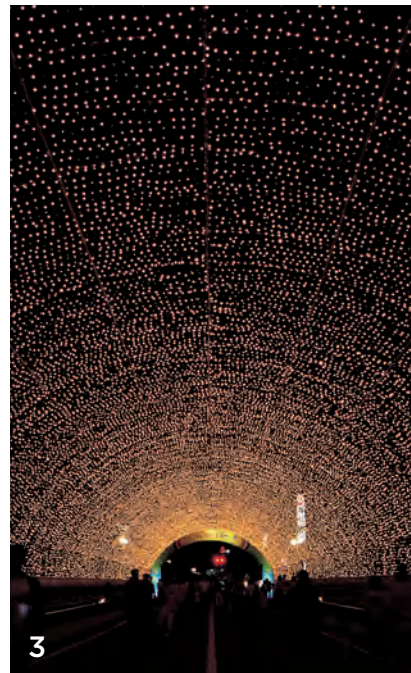
- 환상적인 상고대와 설경을 만날 수 있는 덕유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눈꽃 여행 성지로 손꼽힌다. 마치 새하얀 사슴뿔이 얹히고설켜 것처럼 만발한 눈꽃이 어찌나 화려한지 오죽하면 “죽은 나무도 꽃을 피우는 곳”이란 말까지 있을까. 서해의 습한 대기가 높은 봉우리를 넘어 눈을 뿌리기 때문에 남부 지방이지만 눈이 많이 와, 언제 찾아가도 완벽한 겨울 왕국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곤돌라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정상인 향적봉까지 40여 분이면 오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주말과 휴일엔 탑승객이 몰리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 몸을 녹이는 와인 한잔, 머루와인동굴

- 우리나라 머루 생산량의 약 60%를 재배하는 무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무주수양발전소를 만들며 뿜은 작업용 터널이 와인이 익어가듯 동굴로 변신했다. 야생 포도인 머루는 포도보다 맛과 향이 진해 와인 만들기에 제격인데, 현재 무주 머루 생산 농가 110여 가구와 5개 머루와인업체가 손잡고 국산 와인을 생



2



3

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와인을 무료로 시음하고, 와인으로 족욕도 할 수 있다. 물론 시중보다 저렴하게 와인 구입도 가능하다.

### 반딧불이의 고향에서, 반디랜드

- 반딧불이 서식지 무주! 겨울이라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언제나 반딧불이 춤추고 희귀 곤충이 반기는 무주반디랜드가 있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를 테마로 곤충 박물관, 생태 온실, 반디별천문과학관 등이 모여 있는 생태 체험 공원이다. 특히 중심이 되는 곤충 박물관에는 반딧불이, 나비, 비단벌레 등 2,000여 종의 곤충 표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희귀 곤충 표본까지 전시되어 있다. 🍀

1 알프스풍의 덕유산 리조트 호텔 티를, 유럽풍의 이국적 분위기가 겨울 낭만을 한껏 고취시킨다. 2 머루와인동굴은 와인과 함께하는 이색 공간이다.

3 반딧불 축제 전경, 무주는 반딧불이 서식지로 유명하다.

## 무주의 착한맛집을 소개합니다

무주의 착한맛집은 무주의 청정자연과 닮아 있다. 이웃을 돕는 일은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차린 밥상의 맛, 말해 무엇 하리.



착한가게

### 토석정



소갈비찜 전문 식당이다. 진하게 푹 조리된 갈비찜은 정말 부드럽고, 맛깔스러운 밑반찬도 식욕을 돋운다. 이 밖에도 능이버섯불고기와 등심 등 다양한 고기 요리가 있다.  
 📍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718  
 ☎ 063-324-8292

### 천지가든



무주식 산채비빔밥 레시피를 정립하고 <한식대전3>에서 맹활약한 박순자 명인의 식당! 한국관광공사 100대 맛집, 전북 천년명가로 선정되며 전북 음식의 맥을 이어가는 곳이다.  
 📍 전북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13번지  
 ☎ 063-322-3456

### 무주명가



무주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 한우 생등심부터 돼지갈비, 한돈 뒷고기까지 알차게 구성돼 있다. 맛과 가성비가 뛰어난 차돌쌈밥정식도 인기 메뉴다.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5길 4  
 ☎ 063-324-5333



## 사랑의열매가 달콤상콤 젤리로 탄생!

이제 편의점에서도 사랑의열매를 만나보세요!



## 사랑의열매가 달콤상콤 젤리로 탄생

이제 슈퍼에서도 사랑의열매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GS25 편의점에서 사랑의열매 젤리를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의 상징을 딴 모양의 사랑의열매 젤리가 출시됐다. 사랑의열매와 GS리테일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젤리는 향긋한 체리 향과 쫄득한 식감으로 씹을수록 입안에 즐거움이 퍼진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10%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가까운 GS편의점과 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서 귀엽고, 맛있는 '착한' 사랑의열매 젤리를 구입할 수 있다. ♡

###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 만화로 보는 나눔 이야기



\*클라우드펀딩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모금 프로그램입니다.

글·그림 오동진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 나눔의 마법, 함께 만들어볼까요?

지난 11월 5일 제9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이 온라인에서 생중계됐다. 이번 시상식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도 수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제9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나눔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928명이 응모했으며, 개인상 1,034명, 단체상 30개교, 지도교사상 4명 등 모두 1,068건의 수상자가 나왔다. 시상식에는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사랑의열매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자 나눔공모전 홍보대사를 맡은 최현우 미술사, 대표 수상자와 가족 약 20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그 외 수상자와 가족, 지도교사 등 200여 명은 유튜브 또는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으로 참석했다. 또한 시상에만 그치지 않고 홍보대사 최현우의 마술 공연, 수상자들의 랜선 인증,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나눔은 00이다'를 작성하는 댓글 이벤트 등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신기한 마술 공연을 선보인 최현우 미술사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래영(대상), 최현우 미술사(홍보대사), 제갈선(대상),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소희(장려상), 이현자(지도교사상 대상), 김혜원(최우수상)

**수상소감대표**

“저의 작은 재능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징검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상(교육부 장관상) 개인 부문 수상 경북 사동고등학교 1학년 조민서 양

**수상축하의말**

“이번 공모전의 높은 응모율을 보고 10, 20년 후에 나눔 세상이 되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나눔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했습니다. 나눔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이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참가자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나눔을 계속 실천해가길 바랍니다. 정부도 아이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나눔의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 같이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할 때 마술 같은 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이 이 세상을 덮는다면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마법, 나눔을 믿으세요.”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겸 나눔공모전 홍보대사 최현우 미술사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상(교육부 장관상)** 개인 부문 경북 사동고등학교 1학년 조민서 양, 서울 한강중학교 2학년 제갈선 양, 인천 승학초등학교 6학년 김래영 양, 경북 약목초등학교 3학년 안대훈 군 **단체 부문** 경북 길주중학교 **지도교사 부문** 경북 길주중학교 이현자 교사

**최우수상(시도 교육감상)** 35명, 지도교사 1명, 12개교 **우수상(사랑의열매 회장상)** 79명, 지도교사 2명, 17개교

**장려상(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상)** 169명 **입선(사랑의열매 지회장상)** 747명



판매 수익금 10% 기부, 상품 개발 업무 협약 체결한 GS리테일과 사랑의열매

## “이제 맛있게 기부해보아요!”

사랑의열매와 GS리테일의 맛있는 동행이 시작됐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도록 기부 연계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 것. 착한 소비의 새로운 유행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상징인 빨간 열매 모양의 체리 맛 젤리. GS25와 GS더프레시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왼쪽)과 GS리테일 조운성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기부 연계 상품, 공동 개발

(주)GS리테일과 사랑의열매가 기부와 연계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실천 상품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 지난 10월 1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GS리테일 조운성 사장과 안병훈 상무,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과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GS리테일이 10월 말부터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서 기획 상품 5종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10%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GS리테일의 주 이용층인 MZ(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20~40대가 '착한 소비'를 통해 기부를 경험하면서 보다 친근하게 사랑의열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제는 착한 소비가 대세!

이번에 출시한 기획 상품은 사랑의열매 마스코트인 '열매둥이'가 그려진 빼빼로 4종과 사랑의열매 상징인 세 알의 빨간 열매 모양의 체리 맛 '사랑의열매 젤리' 등 모두 5종이다. 빼빼로데이가 지나 빼빼로는 아쉽게도 만날 수 없지만 사랑의열매 젤리는 GS25와 GS더프레시 등 전국 1만 6,000여 개 GS리테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에 기부되는 판매 수익금의 10%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GS리테일 플랫폼은 사회 공익적 기능망 역할을 하며 착한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 함께 ESG 경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친근한 사랑의열매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착한 소비의 장을 마련해준 GS리테일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



### 열매 미식회! 새콤달콤 젤리 시식 한줄 평

“기분 좋은 새콤함이 입안에 가득, 나눔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랍니다!” - 사랑의열매 A 씨

“사랑을 맛으로 표현하면 이런 맛이 나는군요! 맛조차 사랑스럽습니다.” - 기부자 B 씨

“체리 맛이 나는 사랑의열매 젤리라니요, 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 배분 협력 기관 C 씨



사랑의열매, 2021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 개최

#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상에 희망을 더합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벌어진 2021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 회의 현장으로 가보자.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2021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에 참석한 전국 아너 대표 회원들과 관계자들의 기념 촬영

## 기부 문화를 선도하는 아너 소사이어티

지난 11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비전 호텔에서 2021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회의가 개최됐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랑의열매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2007년 12월에 결성돼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배우 김영철이 제2500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 2,700명이 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민재 W 아너 총리더(엠스 대표이사) 등 중앙을 포함한 지역 대표 및 부대표 32명, 홍보대사이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가수 현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일상에 희망을 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지역 대표들은 지역별 기부 현안과 아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에서 시작되는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 우수 지회 및 공로패 수상 이어져

우수 지회 선정도 이뤄졌다. 지난해 아너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지회가 최우수 지회, 울산과 대전지회가 우수 지회로 뽑혔다. 여성 아너 회원 모임인 ‘W아너 소사이어티’의 이민재 전임 총리더의 이임식과 송주은 신임 총리더의 취임식도 진행했다. 이민재 전임 총리더는 2017년 9월 W 아너 소사이어티가 출범할 때부터 회원 대표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가 2007년 출범한 이후 13년 만에 약 2,7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이제는 나눔문화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고액 기부자 모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열매는 아너 회원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균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많은 아너분이 나눔에 동참해주셨다”면서 “사랑의열매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아너 회원분들의 귀한 뜻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1



2



3

1 W 아너 소사이어티 총리더 이·취임식도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민재 전임 총리더,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송주은 신임 총리더,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2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강사돈 대전 아너 대표, 박광재 경기 아너 대표, 박한규 울산 아너 대표,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3 우수 지회 선정 및 공로패 수상 등의 행사도 진행했다.



사랑의열매 기부자 29명 수상

#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지난 11월 10일 사랑의열매·보건복지부·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이하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이번 나눔국민대상 수상자는 모두 135명으로, 이 중 사랑의열매 기부자 수상은 29건이다. 올해 국민포장은 (주)디셰어 현승원 대표가 수상했다. 현 대표는 2019년 10월 사랑의열매에 10억 원을 기부 약정하며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기

부자 중 최연소 회원이 되었다. 그는 10여 년간 사랑의열매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 약 58억 5,000만 원을 기부하며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 외 주요 수상자로는 • 대통령 표창 5건(삼성SDS 사회공헌단, 배우 다니엘 헤니, ㈜보수전장,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제주도치과외사회) • 국무총리 표창 3건(오중수 한일냉장(주) 대표, 이은자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대전도시철도공사)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9건(전성현 주한네팔명예영사관 명예영사 외 18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1건(주)에스피엘이다. 한편, 지난 10월에 나눔국민대상 10주년

(왼쪽부터) (주)에스피엘 김동희 총괄,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 가수 현숙(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주)디셰어 현승원 의장(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여섯 번째 회원), KBS 양승동 사장,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삼성SDS 사회공헌단장 정석목 전무가 함께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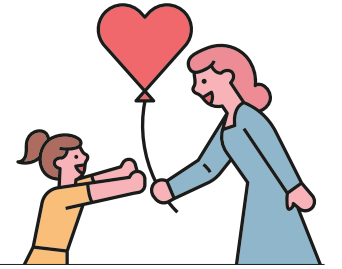
을 맞아 교보문고 광화문 본점에서 역대 수상자들의 나눔 이야기를 담은 무인 전시회 <나눔을 적다, 마음을 적는다>가 열렸다. 사랑의열매 기부자의 실제 필체를 폰트로 제작해 만든 나눔 메시지 액자와 추천 도서를 함께 비치한 것. 전시를 찾은 이들에게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볼 기회를 제공했다. ❀



교보문고 광화문 본점에서 진행된 무인 전시회 모습

## 제주 사랑의열매 제10대 강지언 신임 회장

#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강지언 이사장이 제주 사랑의열매 10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제주 1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자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회 이상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먼저, 제주 사랑의열매 10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주 나눔문화 활성화에 힘써주신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제주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주는 나눔과 봉사의 대명사인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물론, 어려울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 특유의 수놓음(품앗이) 정신이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금액이 최초 100억 원을 돌파하는가 하면 3,000곳 넘는 착한가게가 있는 인정 넘치는 곳이지요. 유난히 따뜻한 제주의 나눔문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기대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지언 회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연강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중금연구지원센터 등의 센터장을 맡는 등 제주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회 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사랑의열매를 통해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보다는 두 번째 기부가 쉽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쉽더라고요. 원동력보다는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복지분야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가 정신 건강과 중독이다 보니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정신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름다운 제주 지역에 행복한 사람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민들에게 나눔이 좀 더 자연스럽게 친숙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존의 착한가게, 착한가정과 같이 다수가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나눔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회 지도층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문화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모금 인프라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중앙회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재활대회 공로상 수상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50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1984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장애인 복지와 교육,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온 조흥식 회장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행정 및 정책 분과 위원장을 지내고, RI Korea 전문위원회 5대 의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정책 개발과 정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로상 수상 후 조흥식 회장은 “재활대회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1975년 현재의 난곡동 일대를 방문해 빈곤에 대해 연구하던 대학생 시절이 떠오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장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991년부터 38년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조흥식 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원장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사랑의열매 10대 회장으로 취임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하공화국 정부대표단, 사랑의열매 방문

고려인이 거주하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정부대표단이 지난 11월 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하공화국 매스트니코프 세르게이 바실리예비치 부총리,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 상임대표, 외교부 제1차관, 국립의료원 원장, HBK 국영 방송국 사장 등 사하공화국 정부대표단 11명이 방문했으며, 한·러 민간교류협회인 코러스 소사이어티(KORUS Society) 대표 이규

환 목사와 이사(코러스 포럼 준비위원단장)인 배우 정한용 씨가 함께했다. 사랑의열매는 간담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민간 나눔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과 민간 나눔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를 전하고, 사하공화국과 민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사하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민간 교류에 기여한 공적으로 사하공화국 외교부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



복지현안 지원 사업 선정 기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서울 사랑의열매가 복지 현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서울 지역 사회복지시설 24곳을 선정해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전달했다. 복지 현안 지원 사업은 현장의 복지이슈 및 긴급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배분 사업이다. 올해는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활동을 위한 시설 긴급 개·보수,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평화토속맛식품·바다나라, 착한가게 가입

가락물 수산부 대표 가게인 평화토속맛식품(대표 강정문)과 바다나라(대표 김종완)가 서울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강정문·김종완 대표는 현판 전달식 당일, 다른 상인들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착한가게 캠페인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청해(청인)수산(대표 권주산), 참광천토굴젓갈수산(대표 장화자), 즐거운수산(대표 오원익), 늘부수산(대표 송기태) 등 4곳이 착한가게에 동참하며 가락물 수산부의 나눔 저력을 보여줬다.

부산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 사상구 1호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지난 11월 4일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정희)가 부산 14호이자 사상구 1호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가입식에서 전달한 성금 714만 원은 사상구 관내 아동 생활 및 이용 시설 7곳에 전달했다. 임정희 회장은 “사상구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님들과 3년 전부터 뜻을 모아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100여 명의 원장님이 마음을 나눠주셔서 무척 감사하다”며 지역 아동과 이웃을 위해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주), 코로나19 극복 성금 2억 원 기부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성금 중 1억 3,000만 원은 한국남부발전(주)이 2018년 복지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기차와 충전 설비를 후원하고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보조금으로, 또다시 사회 공헌 재원으로 사용해 그 의미가 크다. 성금은 학대 아동의 심리 치료 지원, 디지털 교육 및 기기 지원, 청년 니트족 자립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메신저 피싱 피해 보상금 기부한 익명의 기부 천사

지난 11월 15일 대구 사랑의열매에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상자가 도착했다. 상자에는 5만 원권 지폐로 현금 170만 원과 기부 사연이 담긴 쪽지가 들어 있었다. 기부자는 "지난 2월 메신저 피싱으로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가 일부를 보상받게 되어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큰일을 겪었음에도 자신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 성금 1,000만 원 전달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본부장 원소연)가 인천 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그 중 일부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판매해 얻는 수익금과 매칭금으로 조성했다. 이 수익금은 서구 지역 가구에 친환경 보일러 및 LED를 보급하는 데 사용한다. 원소연 본부장은 "이웃 돌봄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트컴퍼니 모이모, 아동 양육 시설에 미술용품 기탁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아트컴퍼니 모이모(MO2MO)(대표 서지안)가 광주 사랑의열매에 1,000만 원 상당 미술용품 4,900세트를 기탁했다. 모이모가 기탁한 아로파스 및 컬러링북은 광주아동복지협회로 전달해 아동 정서 발달과 심리 치유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서지안 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랑의 연탄 및 김장 나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이 대전 사랑의열매에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매년 겨울이 되면 대전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김장을 지원해왔다. 이번 성금은 동구 관내 저소득 가정 20세대에 연탄을, 사회복지시설·기관 16개소에 김장 김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민호 행정본부장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위기 극복 사업에 4억 2,000여만 원 배분

대구 사랑의열매가 포스트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사업으로 대구 사회복지시설·기관 47개소에 기능 보강 및 프로그램 사업비 4억 2,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체계 마련과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장비, 방역 물품 구비와 공사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은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T&G 상상유니브인천운영사무국, 성품·성금 기탁

KT&G 상상유니브인천 운영사무국(국장 박지혜)이 인천 사랑의열매에 상상나눔 키트 100개와 상상펀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상상나눔 키트는 ESG 활동으로 기획한 '너를 위한 무해한 하루'를 통해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폐가죽으로 만든 카드 지갑에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넣어 제작했으며, 성금과 카드 지갑은 인천 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AF인베스트먼트 양관운 대표, 겨울맞이 이웃사랑 실천

금융 투자회사 AF인베스트먼트 양관운 대표가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추운 겨울을 맞이할 광주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연탄과 김장 김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광주 아너9호 회원인 양관운 대표는 지난 7월 고려대학교의료원에 6억 5,000만 원의 의학발전기금을 기탁한 이후 또다시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문화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대전광역시체육회, 모바일 앱 기부 챌린지 성금 전달

대전광역시체육회(회장 이승찬)가 대전 사랑의열매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대의 생계비로 지원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21 걷기 좋은 건강도시 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걸음 수를 모아 다양한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걷기 앱(워크온)을 다운받아 대전광역시체육회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 에너지 나눔 캠페인 지원금 쾌척**

아이에스동서(주)(회장 권혁운)가 울산 사랑의열매에 '우리 울산 에너지 나눔 캠페인' 지원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냉방기 및 난방용품 600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권혁운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혹서·혹한기에 더욱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게 됐다"며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재성·정옥선 부부, 자녀·손자와 함께 착한가정 가입**

수원시에 사는 박재정·정옥선 부부 가족 3대가 경기 사랑의열매 착한가정에 가입했다. 자녀 부부와 손자까지 모두 8명이 함께 뜻을 모은 것. 3대를 대표해 가입식에 참석한 박재성 씨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착한가정에 가입하게 되어 기쁘다"며 "손자들이 가정 내에서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소중한 나눔의 의미를 잘 알아가길 바란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사랑의열매 대상 희망장 수상**

가수 임영웅의 기부 실천 팬 카페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팬덤형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팬클럽 최초로 제8회 사랑의열매 대상 기부 부문 희망장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17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대회의실에서 열린 표창장 전달식에는 임히어로 서포터즈 팬 카페 회원 8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팬심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기부가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 감동스럽다"며 더욱 활발한 나눔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현대자동차(주) 강원지역본부, 1,000만 원 쾌척**

현대자동차(주) 강원지역본부에서 사랑의 온기 나누기 후원금 1,000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춘천·강릉·속초 지역 연탄은행과 복지재단의 연탄 구입비로 사용했다. 구입한 연탄은 현대자동차 임직원 및 가족의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 강원지역본부장 김경백 상무는 "동절기 연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금호석유화학, 5,000만 원 상당 방역 물품 지원**

금호석유화학이 울산 사랑의열매에 5,000만 원 상당의 라텍스 장갑 45만 4,500장을 전달했다. 장갑은 울산 5개 구·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 및 지원 인력들에게 지원했다. 금호석유화학 정창수 울산 고무공장장은 "현장에서 주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세계 당뇨병의 날 맞아 마스크 기부**

에스디바이오센서(대표이사 허태영)가 세계 당뇨병의 날 11월 14일을 기념해 경기 사랑의열매에 마스크 4만 장을 기탁했다. 마스크는 한국당뇨협회 등 여러 관련 기관·단체에 전달했다. 허태영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관련 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상공회의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파주상공회의소(회장 박종찬)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연탄 9,600장(72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연탄은 파주시 저소득층 21가구에 전달했으며, 파주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에서 30여 명이 봉사 활동에 참여해 문산읍 저소득층 한 가구에 연탄 500장을 직접 전달했다.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한 박종찬 회장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며 "주변 이웃을 살피고 필요한 곳에 나눔의 손길이 닿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심장학회, 업무 협약식 및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식**

강원 사랑의열매는 강원심장학회(이사장 조병렬)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도내 의료 사각지대 취약 계층의 건강한 삶과 사회 복귀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진행했으며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의 추천을 통해 심장 질환 취약 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심장학회는 같은 날 2,000만 원을 기탁하며 도내 네 번째로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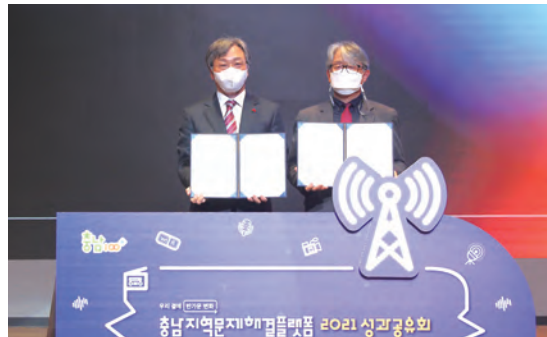
KT&G 충북본부, 장학금 1,000만 원 전달

도내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KT&G 충북본부(본부장 강성열)가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충북 사랑의열매는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정해 충청북도 7개 시군 20명(청주시 8명, 충주시 3명, 제천시 3명, 진천군 2명, 옥천군 2명, 음성군 1명, 괴산군 1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원했다. 강성열 본부장은 전달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2021 이웃사랑 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충북 사랑의열매와 영동군청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이웃사랑에 앞장선 모범 군민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는 (주)거담 이상민 대표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조숙영 희망복지지원팀장이다. (주)거담은 2017년 법인 설립 후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조숙영 팀장은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충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연합 모금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충남 사랑의열매는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사장 이상선)과 주민 참여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연합 모금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제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협약을 통해 조성한 재원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기획 사업비 8억 원 전달

코로나19 이후 더욱 도움이 필요해진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 사랑의열매는 5개 사업을 기획하고, 지난 11월 10일 42개 사회복지기관에 사업비 8억 원을 전달했다. 각 기관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 지원 사업,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정적 보호·양육 환경 지원 사업,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 취약 계층 취업 기반 형성을 위한 직업 재활 지원 사업, 정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초기 적응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소방본부, 119행복하우스 5호 준공식 진행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가 지난 11월 18일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화재 피해 주민에게 새집을 선물했다. 이번 제5호 119행복하우스 대상자는 지난 2월 10일 보일러 수리 중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다. 불의의 화재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5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보금자리를 잃었고, 이들은 도움이 손길이 절실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순창군과 순창군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을 완공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 외 4명, 나눔리더 가입

지난 11월 16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 외 4명의 임원이 나눔리더에 단체로 가입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평소 사회봉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김장 나눔, 연탄 나눔 등 기업 차원의 나눔 활동 뿐 아니라,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매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박지현 사장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어 기쁘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나눔온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기영 씨, 목포 18호 아너 가입과 함께 1억 원 전달

지난 11월 12일 유기영 씨가 전라남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며 전남 124호이자 목포 18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배우자인 목포올바른정형외과 박형원 원장은 전남 104호(신안 2호) 아너로, 이번에 유기영 아너가 가입함으로써 부부가 나란히 아너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기영 신규 아너는 가입식에서 "부부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동참해 나눔의 의미에 공감할 수 있어서 기쁨이 배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흥산업(주) 오준호·김민숙 부부, 동시 아너 가입

장흥산업(주) 오준호 이사와 김민숙 대표이사가 지난 11월 15일 각각 1억 원의 기부금을 약정하며 전남 122호·123호이자 장흥 6호·7호 아너 회원이 됐다. 이날 가입으로 전남 부부 아너 15호이자, 2019년 이후 2년 만에 장흥군 신규 아너 회원이 탄생했다. 오준호·김민숙 아너는 "부부가 서로 나눔의 뜻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들이 약정한 성금 2억 원은 장흥군 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의 이동식 청년 주택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11일 경북도청, 영덕군, 영덕관광문화재단,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청년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희망의 이동식 청년 주택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행정 지원 및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경북 사랑의열매는 6평 규모 이동식 주택 5채의 제작 비용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주택 5채의 제작·기부를 비롯해 총 10채의 주택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 쾌척

지난 11월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정철)는 경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북 사랑의열매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경북인재평생교육원에 전달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정철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전문 건설인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솔 군, 첫돌 맞아 생애 첫 기부

지난 11월 8일 첫돌을 맞이한 강우솔 군이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강우솔 군은 나눔리더 5·6호인 강정한·박혜랑 부부의 차남으로, 장남 강우진 군(나눔리더 95호)에 이어 강우솔 군도 돌잔치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나눔에 참여했다. 강정한·박혜랑 씨는 "아들이 의미 있는 오늘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 성금 1,500만 원 전달

사회복지법인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는 지난 11월 17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업 성금 1,5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탁받은 성금으로 김치 4,880kg을 마련해 경남 도내 58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지난 2005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제2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 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 이하 제주개발공사)와 제2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제주삼다수 Happy+ 공모 사업은 사회 가치 발굴형 공모 사업이다. 이번에는 5억 원을 투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35개 기관이 4·3제주항쟁 유족, 재향군인, 암 투병 환자, 농촌 자살 위기 가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3,474명의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



(주)웅진건설, 나눔명문기업 가입 및 3억 원 기부 약속

지난 10월 29일 (주)웅진건설(대표 송승천)이 현재까지 가입한 제주 나눔명문기업 중 최고 금액인 3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나눔명문기업 5호 법인 회원이 됐다. 약정한 기부금은 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생활환경 및 학업 여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웅진건설은 2011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고 있으며, 정기 무료 급식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 착한일터 62호 가입

지난 1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박영송, 이하 진흥원)이 세종 62호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세종 사랑의열매는 진흥원을 방문해 착한일터 62호 현판을 전달했으며, 이로써 진흥원 전 직원이 매월 정기 기부를 통해 세종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데 동참하게 됐다. 박영송 원장은 가입식에서 "우리 직원들이 모은 소중한 정성이 세종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큰 희망으로 꽃피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맘카페, 엄마 손맛 김장김치 후원

세종맘카페(대표 정연숙)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손수 만든 김장 김치를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김치는 세종시 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종시지원봉사센터, 드림스타트를 통해 취약 가구와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세종 사랑열매 나눔리더스클럽 2호인 세종맘카페는 지난 2017년부터 쌀과 김장 김치, 연탄 지원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 등을 활용한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 중앙 349호



**황호건 전 LG전자 부사장**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은총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334호



**故 박민호**

“나눔이란 작은 사랑입니다. 또 작은 나눔입니다.”

### 서울 335호



**김태현 (주)벽제 부회장**

“나눔이란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 서울 336호



**이소영 금융디톡스 대표**

“나눔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 서울 337호



**윤삼영 첫눈애안과 대표원장**

“나눔은 사랑입니다.”

### 서울 338호



**이창섭 (주)석정도시개발 회장**

“나눔다는 것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 부산 233호



**황승식 (주)로피물산 대표이사**

“기부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것.”

### 부산 234호



**김데라 로피주식회사 대표이사**

“기부란 생각이 많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부산 정충교 (주)디아인씨 대표, 김대환 (주)희천 대표이사

### 대구 190호



**제성욱 (주)프로에프에스 대표**

“저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이 나눔 실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 대구 191호



**성준제 성피부과의원 대표원장**

“사회에서 받은 것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그동안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저의 나눔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이웃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울산 104호



**조은정 촌당 본점 대표**

“한 번에 많은 선행을 하려고 미루는 사람은 어떤 선행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 경기 269호



**황규열**

“6·25를 겪으며 배우지 못하고 배고픈 서러움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생각 끝에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 전남 122호, 123호



**오준호, 김민숙 장흥산업(주) 공동대표**

“부부가 서로 나눔의 뜻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전남 124호



**유기영 목포올바른정형외과 박형원 회원 배우자**

“부부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동참해 나눔의 의미에 공감할 수 있어 기쁨이 배가되는 것 같습니다.”

### 전북 77호



**서한국 전북은행장**

“더 밝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북 131호



**장은희 제일엔지니어링 실장**

“평소 기부와 봉사에 관심만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의 무지개를 그려가보려고 합니다.”

### 제주 124호



**김경호 동남기업(주) 대표**

“나눔이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 의견



11월호 '맛있는 나눔으로 사랑을 이어갑니다!'를 읽고 착한가게에 가입한 국민 배우 정보석 씨의 우주제빵소를 접했습니다. 유명 배우에서 빵집 사장으로 변신해 자신의 SNS에 직접 착한가게 가입 소식도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구독자와 소통하며 인연을 맺어나가더군요. 착한가게 우주제빵소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빌어봅니다. -우향화, 서울시 서대문구



'희망2022나눔캠페인 프롤로그'에 코로나19 모금부터 희망2022나눔캠페인까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지킨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돌아보기를 펼쳐놓은 걸 보니 사랑의열매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보이는 듯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봤습니다. 삭막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살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강현숙, 경기도 시흥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던 중, 마침 이번에 〈사랑의열매〉가 수원을 소개한 것을 보고 이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름다움과 규모, 과학성까지 두루 갖춘 수원화성에서 천재 군주 정조가 꿈꾸던 세상도 만나보고, 맛과 나눔으로 수원을 지켜온 착한맛집에도 들르겠습니다. ^^ -김지영, 경북 경산시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열매동이인형



휴대용 장바구니



안마봉

〈사랑의열매〉를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이 웹진으로도 발행됩니다.

사랑의열매 웹진  
nanumnews.or.kr

소액의 기부로  
행복이 쌓인다\*\*

울겨울, 모두가 따뜻하게  
소복소복 기부하세요

